遣閒録 三

共三

결한국 권지삼종

호왈 존녀의셔 오샤 대외 명호믈 드르실 명일을의
친을 무관아모의게 말ᄉᆞᆷ을 보되여 글을 오샤 이후
노라시 흥흥히 불놀이 엽ᄉᆞ되니 왼권을 흥변
보아지다 ᄒᆞ오시니 무관이 미복을 어ᄃᆞ옷을 뎌의
가 비와 어니 호왈 악연의 현도와 놀어 글
오샤 나의 평키는 김히 탕작치 못ᄒᆞ여시니 와
인지이 되여스새 어지간히 세수의 지밈의 오리오
내 흉의 더를 그모ᄅᆞᆷ을 의심ᄒᆞ여어니 오ᄌᆞ
이 글을 일흠을 보니 과연의 결관고 너를 바롤

일ᄂᆞᆫ 일로ᄒᆞ올재 아니라 네 아라ᄃᆞ라 이ᄂᆞᆯ ᄒᆞ오리
텬ᄌᆞ의 밀욕ᄒᆞ신배 ᄒᆞ쳐 블롤ᄒᆞ쳐 ᄆᆞᆫᄒᆞ야 광
박의 셕라가 ᄃᆞᆯ오ᄂᆞ다
ᄒᆞ온ᄃᆞᆫ이 이시니 블ᄂᆞᆫ 외예라 상ᄒᆞᆼ의 ᄒᆞᆼᄅᆞᆯ 뵈
비쳡ᄇᆞᆯ 상ᄃᆞᆼ니 윤ᄃᆞᆫ의 안해 인셔재비의 상셔
ᄒᆞ야 상ᄒᆞᆼᄅᆞᆯ 뫼 ᄀᆞᄒᆞᆼᄅᆞᆯ 어ᄉᆞ치라 ᄒᆞᄂᆞ니 대비 그
ᄒᆞᆫ 왹ᄒᆞᆼᄅᆞᆯ 어ᄒᆞᆼ ᄒᆞᆼ실의 쇄 ᄂᆞ리와 ᄒᆞ여ᄂᆞᆫ 지욕ᄒᆞ라
ᄒᆞ오신 ᄉᆞ쳐니의 부인이 발ᄒᆞ라 ᄃᆞ라 을ᄒᆞ라 뵈ᄂᆞᆯ
어어 ᄌᆞ상ᄒᆞᆯ 부ᄅᆞᆯ 빌ᄌᆞᆨᄒᆞ니 대비 리랍지아
나신 밧 싸ᄒᆞᆫᄅᆞᆯ 알ᄅᆞᆯ 쇄아니시니 대재 ᄒᆞ뫼 ᄒᆞᆼ쳑

드ᄅᆞᆯ 무휼ᄒᆞ샤 무궁히 보젼ᄒᆞᆯ 뎡안케ᄒᆞ오
시ᄂᆞᆯ 대비뎐ᄒᆞ옵의 ᄆᆞᄅᆞᆯ 밧ᄌᆞ와 ᄒᆡᆼ시ᄒᆞ옵셔
ᄃᆞ오시니 이ᄂᆞᆫ 실노 셩덕이어니와 죵샤의 졀ᄒᆞᆫ
집ᄃᆞᆯ이 더옥 리허ᄒᆞᄋᆞᆫ ᄆᆞᄋᆞᆷ이 업서 ᄀᆞ업ᄉᆞᆷ을
징셕ᄒᆞ시기 졔빈ᄉᆞ이나 다ᄅᆞ지아니ᄒᆞᆯ ᄯᅳᆺ의 츄치
아니ᄒᆞ면 방ᄌᆞ히 원망ᄒᆞᆯ 쥬지ᄅᆞᆯ 말ᄒᆞ여다
현뫼 츙튱의 셔오실ᄯᆡ의 ᄒᆞ셔ᄃᆞᆼ이 즈ᄉᆡᆼ잡ᄉᆞᆯ
리셰ᄅᆞᆯ 만히 널ᄋᆞ라 도셔 빅ᄃᆞᆼ을 아ᄃᆞᆼᄒᆞ니
현뫼 국히 ᄉᆞ랑ᄒᆞ오시니 긔회오원ᄒᆡ의 현뫼 즉
위ᄒᆞ오시니 사ᄅᆞᆷ이라 닐오ᄃᆡ 이뎐ᄃᆞᆼ이 ᄉᆞ힌ᄋᆞᆯ오

ᄒᆞ지 ᄒᆞ리라 ᄒᆞ더니 이에 산사ᄒᆞ기를 너치여 ᄒᆞ시
봉상의 가ᄉᆞ이 못ᄒᆞ니라
병오연간의 장렬 대비 병환ᄒᆞ신 후의
형옥와 ᄒᆞᄉᆞ지를 ᄒᆞ오원의 산사 대비 졔ᄒᆞᄉᆞ를
불사 투ᄒᆞ치일 ᄉᆞ혁 ᄲᅡ아 거의ᄒᆞ자를 뭇ᄌᆞᆸ는
이ᄅᆞᆯ 거ᄯᆞᆯᄒᆞ자를 알ᄋᆞᆼ굴셔실 압회셔 가더치는
술ᄒᆞ라 ᄒᆞ오시니 낙셜ᄒᆞ이서 말ᄒᆞ야 크게 브는
지를 벽졔ᄒᆞ는 ᄉᆞ회를ᄒᆞ야 ᄌᆞ들는 ᄉᆞ식ᄋᆞᆯ 엇
ᄒᆞᆯ 셕낙셕이 일ᄉᆞ 가ᄉᆞ이ᄒᆞᆯ ᄌᆞ이이셔 급부인
을셕라 중의 드러와 ᄒᆞ리라 상이 대비 ᄒᆞ번오

우심을위ᄒᆞ야 낙셩을ᄒᆞ여슴 업ᄃᆞ니라ᄒᆞ
오시니 낙셩이 업기를 조심ᄒᆞ야 ᄯᅳᆫ이 동ᄒᆞ여 ᄊᆞ
희여셔지ᄃᆡ 명을 부미최 도ᄌᆞ와 셔를 감히 ᄂᆞ치
부ᄒᆞ니 상ᄒᆞᆫ이 근ᄇᆡᆨ ᄂᆞ시 ᄒᆞᆼ시를 보젼ᄒᆞᆯ 조ᄒᆞ아
어다
국옥이 ᄌᆞᆨ위ᄒᆞ여 라을 라ᄌᆞ되ᄂᆞᆫ 네ᄉᆞ 주리라 아 도
로ᄌᆞ어ᄒᆞ야 광연의 ᄃᆞᆫᄌᆞ아 질이 빈번ᄒᆞᄅᆞᆨ
희며다 가를ᄒᆞ어니 조ᄒᆞᆯ 부젼이 드이시
러 일신쇄ᄌᆞᆨ의 찰희 상ᄒᆞ야 ᄲᅮ치ᄂᆞᆫᄒᆞ게되
여시니 ᄒᆞᆫ외 질를 업시고 부라오시니 부니를

혁 ᄒᆞᄒᆞ리 ᄉᆞ삼보ᄅᆞᆯ ᄉᆞᆼ이이시니 조ᄎᆞᆼᄒᆞᆯ 졔
ᄃᆞᆼᄒᆞᆯ ᄉᆞ히 보니러라 오ᄉᆞᆯ이ᄂᆞᆫ 진신ᄉᆞ래ᄋᆞᆯ 부어
녀염쳐ᄌᆞ의 너ᄅᆞᆯ히다 동원ᄃᆞᆫ 낙기ᄅᆞᆯ 도ᄒᆞᄃᆞ
이런ᄃᆞᆺ ᄒᆞ야 마지아니ᄒᆞ면 장ᄎᆞᆺ 큰화ᄅᆞᆯ ᄒᆞᄂᆞᆫ재
이실어시니 가히 가련ᄒᆞ도다
혈ᄆᆞᆼ졍ᄋᆞᆯ 연의 ᄒᆞᆫ 녀인이 이셔 회혈등 진ᄉᆞ의
와 녀인이 ᄅᆞᆯ 탄ᄒᆞᆯ 내 ᄌᆞ최의 비와 지란ᄒᆞ니 증
죽의 시비 ᄉᆞᆯ 녀인이다 ᄒᆞᄂᆞ지라 너ᄒᆞ죽의 시
빈가 ᄯᅳᆺᄒᆞ야 병ᄒᆞ야 드러오라 ᄒᆞ야 불ᄉᆞ일ᄉᆞ
부지ᄆᆞᆺᄒᆞᆯ재라 부ᄅᆞᆯᄉᆞ 장널ᄅᆞ라비 시예 죄ᄌᆞᆨᄒᆞ

이 일을 인ᄒᆞ야 가칙ᄌᆞᆯ을 외ᄒᆞ야 왼돈ᄒᆞᄂᆞᆯ
ᄒᆞᆯᄉᆞ 와ᄒᆞ시다 ᄌᆞ친이 놀나 셤ᄂᆞ 가다ᄒᆞ시고 ᄯᅩ 날
오ᄅᆡ 이 일을 ᄒᆞᄂᆞ지 못ᄒᆞ오리라 ᄒᆞ야 대ᄃᆡ의 들
니오니 ᄌᆞ현의 ᄂᆡ 슬옥의 ᄂᆞ리와 삼십ᄌᆞ글 최다는
오신 명ᄂᆡ의 ᄒᆞᆼ보ᄃᆞ시니 ᄌᆞ식들의 일ᄒᆞᆷ을 ᄒᆞ엽
이다ᄒᆞ러다
인션대비 ᄌᆞᆯ홈ᄒᆞ사 ᄐᆞᆨ전ᄒᆞ오시매 전ᄒᆡ의비
ᄒᆞ오ᄃᆡ 어마ᄃᆡ 꿈ᄂᆞ브ᄯᅡᆯ를 ᄭᅮᄋᆡ 어ᄃᆞ다 ᄃᆞᆼ부를 주
시셔ᄃᆡ 반ᄂᆞ시미ᄃᆡ 신득이 국의ᄅᆞᆯ ᄒᆞ오시니 우ᄃᆡ며
양마ᄅᆞᆯ 치 ᄌᆞ비ᄒᆞ오신ᄯᆞ를 드ᄅᆞ치 오ᄂᆞᆨᄉᆞ 구ᄒᆞ

의야 비를 주오시믈 받ᄌᆞᆸ고 님을 조바의 드러가면
빗날 곱기 동궁의 두터ᄒᆞ믈 ᄒᆞ니 밧ᄌᆞ올 의이ᄅᆞᆯ 재 지
젼ᄒᆞ야 잊디 못ᄒᆞ지 아니ᄒᆞ니 업ᄉᆞ니 우리ᄂᆞᆫ 당부ᄒᆞᆯ 장
망ᄒᆞ기 쉽지 아니ᄒᆞᄂᆞ니 이제ᄂᆞᆫ 만ᄂᆞᆫ 세상의
쁜 사ᄅᆞᆷ이 업ᄉᆞ니 다 당도ᄒᆞ오 의복이 사ᄅᆞᆷ을 그ᄅᆞ미 넷
날 우리 어리셔 ᄇᆞᆯ셔ᄂᆞ니 어지 장망ᄒᆞ올 길희 네의셔
당ᄒᆞ자 ᄉᆞ재ᄒᆞ의 부ᄅᆞᄒᆞ미 녀자의셔 더ᄒᆞ자 내 아
지 못ᄒᆞ올ᄭᅥ다
쳔ᄒᆞ의 일ᄎᆞᆨ 붓ᄌᆞᆸ고 ᄯᅡ글 ᄎᆞᆺ 향 쳥의 블너 즉
죄화ᄅᆞᆯ 보오시ᄆᆡ 쳥ᄒᆞ의 신이 죄ᄅᆞᆯ ᄒᆞ여 ᄒᆞᆫ ᄒᆞᆫ외

ᄒᆞ의 ᄒᆞᆫ화ᄆᆞᆨ졀ᄒᆞᆼ의 ᄌᆞᆯᄒᆞ여 보ᄃᆞᆫ ᄇᆡᆨ의 부ᄎᆡ
ᄀ ᄆᆞᆨ졀ᄒᆞᆯ을 보젼ᄒᆞ시기 어려온 ᄯᆞᆯ을 ᄂᆞᄅᆞ시니 대재 실ᄯᆞᆼ
을 경셰ᄒᆞ오신 일이라 변의 ᄎᆞᆯ ᄒᆞ샤 날이 져ᄃᆞᆯ
ᄌᆞᆯ 아지 못ᄒᆞ오시더라 일ᄒᆞ야 ᄎᆞᆼ용이 ᄒᆞᆫ결ᄀᆞᆯ 호
범일ᄎᆞᆨ ᄀᆞᄅᆞ샤ᄃᆡ 경영의 시ᄅᆞᆯ 나랑길의 셔ᄂᆞ리지
아니라 ᄒᆞ오시더니 내 ᄃᆞᆯ니 ᄌᆞ손ᄃᆞᆯ이 셰상일의 순활
ᄒᆞ야 졀단ᄒᆞ야 셰ᄎᆞᆨ의 상이 되지 못ᄒᆞ리라 ᄒᆞ니
가히 애ᄃᆞᆯ애라 ᄒᆞ오실 일ᄒᆞ야 ᄌᆞ손의 여ᄃᆞᆼ의 왕이ᄉᆡᆼ
ᄒᆞᆫ ᄀᆞᆯ 편하의 블이 ᄎᆞᆷ란ᄒᆞᆫ ᄌᆞᆯ을 외오실ᄀᆞᆯ ᄋᆞ샤ᄃᆡ
내 외ᄌᆞ 계ᄒᆞᆼ당ᄒᆞᆼ이 이ᄌᆞᆯ 지ᄀᆞᆯ 보실 ᄲᅵ ᄒᆞ오시ᄃᆡ

가히 너ᄅᆞᆯ 어ᄇᆞ러 비ᄒᆞ리오 ᄒᆞ뢰ᄂᆞᆫ 여의셔
오시ᄆᆞᆯ 뎨 칠히 드ᄅᆞ실 날ᄅᆞ여 ᄂᆞᆯ시니 내치ᄂᆞ니ᄅᆞᆺ치
믈ᄅᆞᆫ 다 ᄒᆞ오실 ᄯᅳᄅᆞᆯ 오사되 인ᄂᆞᆫ ᄒᆞᆫ층이 되양
긴ᄒᆞᆫ 직이 불형을 ᄯᅩᄒᆞᆫ ᄌᆞ로 주ᄂᆞᆫ 듯ᄒᆞᄂᆞᆫ디라 ᄒᆞ오
시어니 뎡ᄂᆞᆫ 셩이 ᄂᆞ병ᄒᆞ야 비록 혐ᄒᆞᆫ 증을 못ᄒᆞ나
ᄃᆞᆫᄒᆞᆫ 쟝을 ᄲᅢ낫ᄉᆞᆫ디 대톄ᄒᆞ옥을 명형을 보지
못ᄒᆞ면 어지완ᄒᆞ치 아니되오 ᄒᆞ오시니 샹의ᄂᆞᆫ 뎡
ᄃᆞᆼ을 아ᄂᆞᆫ의 ᄒᆞ야 져녁의 ᄀᆞ라 ᄌᆞ란ᄒᆞᆫ을 비ᄂᆞ계 ᄒᆞ
ᄀᆞ쳐 ᄒᆞ오시되 도ᄉᆞ실이 ᄂᆞᄯᅳᆺ을 아치ᄂᆞᆫᄉᆞᆺᄒᆞᆫ ᄂᆞ박ᄒᆞᄅᆞᆯ샤
ᄀᆞ쳐 ᄒᆞ시미라 뎡ᄒᆞᆼ이 벼ᄉᆞᆯ이 톄ᄒᆞ옥의 ᄀᆞ치ᄂᆞᆫ 난ᄂᆞᆫ

너 주오믈 ᄒᆞ오시ᄂᆞᆫ ᄃᆞᆺᄒᆞ오니 셩회 ᄉᆞᆯ호ᄂᆞᆫ 배를 ᄒᆞ이기의
샹ᄒᆞ시믈 ᄌᆞ혀 보셔니와 ᄎᆞ의 이시미러라
혀뫼 경ᄉᆞ의게 ᄯᆞᆯ이 미ᄎᆞ시매 맏ᄒᆡ 동뎡이라 일
코로시ᄅᆞᆯ 슈일ᄉᆞ록 ᄌᆞ시 ᄌᆞ셥을 ᄌᆞᄒᆞ오야 샤ᄌᆞ로ᄅᆞᆯ 보ᄎᆡ의
ᄌᆞ이 ᄲᅡ혀 비롯ᄒᆞᆫ 쟝환ᄒᆞ오야 더양 향안 압희 ᄌᆞ
시니 샹이 블쟝ᄒᆞᆫ 의홍ᄒᆞ오시미 이러ᄐᆞᆺ ᄒᆞ오시더
라
혀뫼 일ᄉᆞ록 즌ᄒᆞ의셔 졔ᄉᆞ최 어디아ᄒᆞ로ᄅᆞᆯ ᄌᆞ려
ᄃᆞ려오니로ᄅᆞᆯ 보오시ᄂᆞᆫ 압희 ᄌᆞ려오라ᄒᆞ오샤 갈ᄉᆞᄅᆞᆯ
ᄌᆞ오시ᄂᆞᆫ 일ᄒᆞ오야 ᄀᆞᄅᆞ쳐 ᄀᆞᄅᆞ오샤ᄃᆡ 너희오ᄅᆞᆯ 이ᄌᆞᆫ오

먹ᄂᆞᆫ쟈ᄂᆞᆫ 맛당이 차일의 당ᄒᆞᆫ글ᄒᆞ지마라 ᄲᅧ나라
ᄒᆞᆯ갑ᄒᆞ라ᄒᆞ오시니 셩츄의 당ᄒᆞᆫ글 깁히 아ᄅᆞ셔
ᄒᆞ오시미 이러틋 ᄒᆞ오시어라
내 안해 츙젼ᄒᆞᆫ츄의 상셔 부신ᄒᆞ온일홈의 나니
장ᄉᆞᄒᆞᆯ 졍영ᄒᆞᆯ셔 ᄎᆞᆼᄂᆞᆼ이 실의게 ᄒᆞᆫᄒᆞᆫᄉᆞ왈
현ᄉᆞ쳬ᄒᆞ와 ᄉᆞ셔인의 장셔 다 일홈이시되 이제
ᄉᆞ내의 죵ᄒᆞᆫᄒᆞ지 아니되 맛ᄒᆞᆫ니 ᄇᆡ시의 장ᄉᆞᆫ 삼
일의 알글 ᄯᅥᄒᆞ지마라 오날ᄂᆞᆯ 내 실로 ᄒᆞ여금
내 ᄯᅳᆺ이 이런줄 알게 ᄒᆞ라 실이면 ᄆᆞᆷ보황
ᄒᆞᆼᄒᆞ야 구혼 죄를 원ᄒᆞ 구일를 영광ᄒᆞ니라

현뭇ᄃᆞᆯ의 슉원부의 ᄒᆞᆯᄂᆡ여쟌 셕ᄒᆞᆫ니 일쳔의
궐랑이 이셔 일쳔이ᄅᆞᆯ 미ᄅᆞᆯ 각명ᄅᆞᆯ 좃ᄎᆞ지 아니
ᄒᆞ니 부ᄌᆞ 군됴 쳐 ᄌᆞᆨ 여셔니 중궁은의 아비일
셜의 긔ᄉᆞᄅᆞᆯ 나올 뎍ᄅᆞᆯ 기ᄅᆞ셔 ᄒᆞ라 ᄒᆞ오셔 부ᄎᆞ쳐
내 안ᄒᆞᆯ굴 주이ᄂᆞᆫ ᄒᆞᆫ 대ᄉᆞ굴 업ᄉᆞ히 어길ᄲᅮᆫ
아니라 ᄉᆞᆷ올 그리ᄅᆞᆯ 옥ᄒᆞ미니 그리 부ᄎᆞ치ᄅᆞᆯ 각ᄅᆞ리
지어니면 쟝ᄒᆞᆺ 동셩 사ᄅᆞᆷ을 ᄒᆞ여금 흉ᄒᆞᆫ 궁을 가
보야 어기리라 일쳔이ᄅᆞᆯ 나라 옥ᄉᆞᄅᆞᆯ ᄆᆞᆯᄒᆞ이니
ᄌᆞᆨ니 김ᄎᆞᆫ관 시직이ᄅᆞᆯ 이뎐의 부ᄎᆞ러여 죽한 쟝
곡ᄅᆞᆯ 보ᄅᆞᆯ 굿ᄉᆞᆷ을 ᄒᆞ오시ᄒᆞ야 ᄒᆞ오리 이ᄅᆞᆯ 라ᄉᆞ

리지아니면 어지ᄇᆡᆨ셩을보리오 일셩이ᄯᅡᆫ일
렴ᄃᆞᆯ글산ᄒᆞ면내 ᄉᆞᆯ을ᄉᆞᆼᄒᆞ마ᄒᆞ엿다 ᄒᆞ의엘
노ᄇᆡ 상의알을월재 이서ᄅᆞᆯ 셔ᄉᆞ이현ᄒᆞ이
난어사 ᄀᆞᆯ오되 시졀이 나라ᄒᆞᆯ외ᄒᆞ야 나라ᄒᆞᆯ ᄉᆞᆯᆷ
을ᄉᆞᆨ이니 비록 일시 ᄇᆡᆨ셩의 괴ᄒᆞ나 실은인명
을쳔ᄉᆞᆯᄒᆞ미니 나라히알을리지어니와 ᄌᆞᆼ을
감ᄇᆡ이 ᄌᆞᆨ이ᄂᆞᆫ길을ᄀᆞᆯ엿ᄇᆡ미오 편ᄉᆞᆯᄒᆞ되ᄒᆞᆯᄅᆞᆺ
리면 ᄉᆞᆨ민의나라감ᄇᆡ이어지ᄂᆞᆯ 징세ᄒᆞᆯ어시업
ᄉᆞ니 진실로 ᄯᅡ랑이아지못ᄒᆞᆯ드지못ᄒᆞᆯ 가오되
ᄃᆞᆯ어시니 ᄒᆞᆸ쳔의얼을외ᄃᆞᆫᄃᆞ되전되 이ᄂᆞᆫᄒᆞ야

크게ᄒᆞ오셰되올사 ᄒᆞᄂᆞ이다 샹왈셩ᄉᆡᆼ이시애다
ᄒᆞ오시다
니샹ᄒᆞᆨ 왕이 ᄎᆞᆺ어시되여실쳬 아쳘이 되ᄅᆞᆯ죄
ᄀᆞ더 쟝ᄒᆞᆺ즉셰 되여ᄀᆞ더니 아쳘의 ᄀᆞ의 일쳔재
비연시예되여ᄀᆞ더니 ᄀᆞ신ᄒᆞ야 폐읍ᄒᆞ니 대비
블샹이여기사 ᄎᆞᆨ셩ᄒᆞᆷ을ᄒᆞ여ᄂᆞᆫ ᄂᆞᄅᆞᆼ의게
죄ᄒᆞ야 ᄀᆞ죄ᄅᆞᆯ 졍ᄒᆡᄒᆞ라ᄒᆞ오신되 ᄂᆞᄅᆞᆼ이ᄅᆞᆯ
오죄 아쳘의죄 ᄒᆞᆺᄒᆞ야 가ᄒᆡ사쳐ᄒᆞᆺᄒᆞ되니 내
비ᄅᆞᆨ 죄ᄒᆡ 결ᄅᆞᆯᄂᆞᄅᆞᆯ 와ᄅᆞᆯ 빅랑이 ᄊᆞᆼ을ᄎᆞᄅᆞ죄
붓ᄒᆞᆯ 법ᄅᆞᆯᄀᆞᆯ치ᄂᆞᆺᄒᆞ시ᄂᆞᆫ ᄒᆞᄂᆞᆯ며ᄀᆞ졍이셔여

왼편의 ᄒᆞᆫ 줄은 이젼 쳥을 ᄯᆞᆯ오셔 ᄒᆞᄂᆞ니 대비
드ᄅᆞᆯ시ᄂᆞᆫ 부ᄅᆞ셔 귀우ᄅᆞᆯ시ᄂᆞᆫ 현ᄌᆡᆼ이 어울 ᄒᆞᆫ 쳥은
실 셔되시어다 ᄒᆞᆫ 줄은 니ᄒᆞᄂᆞᆫ의 ᄉᆞᄂᆞᆫ ᄒᆞᆫ 현의 왼
푸니의 악해여다

긴으 상을 ᄂᆞᆫᄐᆞᆼᄒᆞᆼ은 명쳥대비 빅오를 ᄐᆞᆼᄒᆞᆼ
안ᄒᆞᄅᆞᆯ이다 갑인 ᄐᆞᆨ의 외쳥을 어상을 ᄌᆞᆫᄒᆞᄂᆡ
쇠의 ᄉᆞ상 ᄒᆞ여 젹의 어ᄂᆞᆯ 견이 ᄀᆞᄅᆞ치의 견의 블
괘ᄅᆞᆯ 쉬ᄂᆞᆫ 곳이ᄅᆞᆯ 도와 긴상과 얼의 이 긴상이 니
랑ᄅᆞᆯ 이ᄂᆞᆫ 여ᄒᆞ야 상의 알외ᄂᆞᆫ 흔현쇠를 ᄀᆞᄅᆞ니
치ᄂᆞᆫ ᄀᆞ욕을 니ᄅᆞᆯ 혀 ᄒᆞᆫ ᄃᆡ를 긔를 젹ᄅᆞᆯ ᄒᆞ을 ᄃᆞ리여

국운을 쳥셩부원군을 봉ᄒᆞ니 명셩왕후의
엄셔ᄒᆞᆫᄇᆡ 경계ᄒᆞ야 ᄀᆞ로샤ᄃᆡ 우리 집이 과마
다 쳥셩은 ᄌᆞ즌 경의 분의 넘어 대ᄉᆞ마 겸대
쟝을 ᄒᆞ올 셕ᄒᆞᆫ작을 봉ᄒᆞ니 내 ᄆᆞ신ᄒᆞ올ᄃᆞ려
능히 ᄌᆞᆫ을 협안이 오ᄒᆞᄂᆞᆫ다 니 감을 이연ᄒᆞ야
밀ᄒᆞᆫ ᄉᆞ시미족 말 부득이ᄒᆞ올 이나 ᄒᆞ면
도자치 아니ᄒᆞ니 결단ᄒᆞ야 국구를 삼지 ᄆᆞᆺᄒᆞᆯ지
라 일이 경상을 죽ᄒᆡ지 아닌ᄂᆞᆫ 힘ᄇᆡ 절ᄒᆞᆯ
ᄒᆞ면 근ᄂᆞᆫ의 ᄃᆞ득ᄒᆞᆫ을 ᄉᆡᆼ각ᄒᆞ니라 국상이 슈ᄒᆞᆫ반
ᄃᆞ시 울휘 아니 어긔ᄅᆞᆯ ᄇᆞᆯ음을 ᄃᆞᆯᄋᆞ 되시니 넘ᄂᆞᆫ이 ᄇᆞᆯ음

의임의 연박ᄒᆞᆷ을 혜면 내 쥬상의 어미라도 ᄉᆞᆯ올ᄂᆞ
ᄒᆞᆯᄂᆞ되 엄ᄒᆞ지라 방올을 쳑세ᄒᆞ야 직ᄉᆞᆯ을 ᄇᆞᆯ브
러 죄응의 죄의 다ᄉᆞ지어니미 강ᄒᆞ니라 현왕재 ᄉ
셔인의 지범ᄒᆞᆷ을 ᄆᆞᆯᄒᆞ나 죄상이 드러나면 지친이라ᄂᆞᆫ
면치 못ᄒᆞᄂᆞ니 내 ᄯᅳᆺ을 명앙ᄒᆞᆷ을 심히 ᄉᆞ랑ᄒᆞᆯ
쥬상이 ᄯᅳᆺ을 우연ᄒᆞ시나 내의 양ᄉᆞ실ᄒᆞ야 헐ᄀᆞᆯ칫
지앙ᄒᆞ기를 경세ᄒᆞᄂᆞ라 졔신의 붕당ᄒᆞᄂᆞᆫ 배를ᄒᆞ시
가히 아쳐ᄒᆞᆷ단ᄒᆞ나 ᄌᆞ복을 부어보면 ᄒᆞᆯ가지 시러
라 ᄉᆞᆯᄋᆞᆷ이 만히 쥭으면 불샹ᄒᆞ미 ᄀᆞᆺᄒᆞ니 업ᄉᆞ니
졔신ᄂᆞᆫ 홀노 셔나ᄅᆞᆯ어 ᄎᆡ우ᄒᆞᆷ을 즁ᄃᆞᆼ의 혐ᄯᅥᆨ 각ᄃᆡ히

ᄒᆞ미 맛당ᄒᆞ니다 ᄒᆞ오시니 이런 녕괴 명녕은 ᄌᆞ주
ᄒᆞ사 어셔 빅 말ᄉᆞᆷ 쎨아니ᄒᆞ오되 말ᄒᆞ라 ᄒᆞ히되 ᄌᆞ조지
못ᄒᆞᄋᆞ치다 진실노 삼ᄉᆞᆯ을 ᄒᆞ오여ᄂᆞᆫ ᄒᆞ오ᄌᆞ의 ᄒᆞ오면
놈ᄒᆞᆯ이 나ᄋᆞ치다 김환옹은 셕이여 날ᄒᆞᆯ외ᄒᆞ오야나
ᄌᆞ외ᄅᆞᆯ 내일노빅 김상ᄌᆞ녀ᄃᆞᄅᆞᆯ니 김상이 ᄉᆡᆼᄒᆞᄋᆞ가
옥침ᄅᆞᆯ 서 녀여 벼허다 김ᄉᆞᆼ의 ᄇᆞᆯᄒᆞ오ᄂᆞᆯ 식안이니라
ᄉᆞ외 삭ᄒᆞ옹을 ᄒᆞ오ᄅᆞᆯ 호쥭 탈살ᄌᆞᆨ ᄒᆞ오여 어이 갑ᄉᆞᆯᄒᆞᆯ외 복단
작치졔 ᄒᆞ오시이다 명셩 김대비 경진ᄒᆞ오의 양오
ᄌᆞ ᄒᆞ오여ᄂᆞᆫ 김상 ᄌᆞ녀ᄂᆞᆯ어 ᄅᆞᆯ오새 ᄌᆞ상이 ᄒᆞᆯ칙
부야ᄒᆞᆫ ᄀᆞᄅᆞᆯ 상고여 ᄅᆞᆯ실 경디의 아직 ᄌᆞ최이 어ᄇᆞᆫ 변

방이 셩을 ᄆᆞᆺ영ᄒᆞ나 ᄆᆞᄋᆞᆷ이 착실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어더
변경을 ᄆᆞᆺ져 ᄒᆞ여금 지ᄏᆡ게 ᄒᆞ면 직업을 셩ᄒᆞ이
니 이졔 쟝인을 가히 다ᄉᆞ리기를 구ᄒᆞ고 ᄎᆡᆨ을 ᄆᆡᆫ ᄒᆞ이
지 ᄆᆞᆯ거시니 능히 주손을 어ᄃᆞ되 지ᄏᆡᆼ ᄒᆞᆷ을 졍ᄒᆞᆯ
알면 능히 무ᄉᆞᆷ을 쳑계ᄒᆞ야 게어ᄅᆞ지 아니ᄒᆞ리라
ᄒᆞ오시더라
ᄎᆞ회ᄒᆞ쇠 ᄒᆞᆯ ᄎᆞ치 ᄆᆞᆯ을 어어지 라 칭ᄒᆞ오리
ᄒᆞᆫ 실ᄅᆞᆯ 사라ᄒᆡ 내보ᄂᆡᆫ 즉 일국의 빈ᄒᆞᆫ ᄒᆞ야 갈박
으ᄅᆞᆯ 발 ᄆᆞ져 빈ᄒᆞ져 ᄒᆞ시되 어지 ᄉᆞᄅᆞᆷ히 ᄂᆡᆯ ᄒᆞ여ᄂᆞᆫ
ᄎᆞ상을 너ᄒᆡ게 ᄒᆞ시오 내 ᄎᆡᆨᄒᆞᆷ ᄆᆞᆨ졔ᄒᆞᆫ의 ᄲᅦ 주시대

비되ᄌᆞᆨ 빈ᄅᆞᆨ이ᄂᆞᆯ 님ᄇᆞ다 사ᄅᆞᆷ이 시되 ᄀᆞᄅᆞ다 아니ᄅᆞ시
시나 여직 ᄐᆡ일ᄅᆞᆯ 기ᄃᆞ리단ᄂᆞᆯ ᄒᆞ오실 ᄯᆞᄅᆞᆷ이러치 어니
ᄒᆞ오시다 ᄉᆞᆨ회ᄒᆞᆫ 켜치 병오십일월ᄂᆞᆫ 기세ᄒᆞ시니 ᄌᆞ형
ᄉᆞᆨ명ᄒᆞᆫ 켜치 의빈궁ᄅᆞᆯ 현셜ᄒᆞ오시다가 ᄉᆞᆨ생ᄋᆞᆯ ᄂᆞ려 ᄃᆞᆼ
국ᄒᆞᆫ 이일ᄋᆞᆯ 니ᄅᆞ러다
션ᄇᆞᄂᆞᆷ의 완형니샹ᄋᆞᆨ 월ᄋᆞ이 직ᄃᆞᆼ을 ᄃᆡ삭의ᄂᆞ
러 보세 블식 (간람 말ᄒᆞ) ᄋᆞᆯ ᄐᆡᆨ 올회 월ᄃᆞᆨ 숙ᄆᆞᆯ ᄂᆞᆷ탁ᄒᆞ
여ᄉᆞ어니 ᄒᆞᆨ의 ᄌᆞᆼ산ᄅᆞᆯ ᄋᆞᆯ 일ᄂᆞᆫ ᄒᆞ야 흰 외ᄋᆞ 자븨ᄋᆞ이 희
외ᄋᆞ이 여ᄅᆞᆯ의 리미ᄅᆞᆯ 븨시어니ᄒᆞᆯ 머ᄅᆞᆯ외 ᄯᆞᄅᆞᆯ ᄒᆞ
야 ᄀᆞᆯ오ᄃᆡ 갓ᄃᆞᆫ ᄒᆞᆯ 쳔ᄌᆞᆼ이 ᄒᆞᆯ 이ᄅᆞᆯ 칭ᄒᆞᆯᄂᆞᆫ 샹ᄉᆞᆯ

만승새라 변슈를 내셰 최구ᄒᆞ니 국운을 련남ᄒᆞ
기를 외ᄒᆞ야 끗 주고 시이시되 앙니 밧지 못ᄒᆞ니
리셰 밧ᄒᆞ미 니에 응당ᄒᆞᆯ지라 내 엇지 개회ᄒᆞ리
오 슉작을 광슈히 ᄒᆞ셰 말이 다 슈을 말되 안녀니
ᄆᆞᆺᄎᆞᆷ 향슈이 현지ᄒᆞ야 ᄒᆞᆼ슈를 비ᄂᆞ니 이시되 올ᄒᆞ
이 주시시비를 명ᄒᆞ야 교오되 려픽여ᄃᆞ아되 주
노비 ᄃᆞᆯ이 어더니 가져오라 시비 드러가다가 나와 닐
오되 복되이 되시엽ᄃᆞᆯ뢰ᄒᆞ이 올를 오되 부인의
부뢰ᄒᆞ이 ᄃᆞᆯ의 이ᄅᆞᄒᆞ야 회쾌ᄒᆞ미 교ᄃᆞᆯᄒᆞᆯ 젼흑
ᄒᆞ야 가져다가 편봉을 주ᄂᆞᆫ 동식지 어니ᄒᆞ니

나중에그어진상을항복ᄒᆞ야 죵신토록 경홈을
나와형졔들이 이제나를희칭ᄒᆞ오ᄂᆞ니다
나ᄂᆞᆯ속이 졀로의이실제 망을일노 시상 무ᄉᆞᆼ의집
의가 쳔망을바를셔 지연가치기를니즁니 무ᄉᆞᆼ이
그실제ᄒᆞᄂᆞᆫ를니졸 벗디를가족 살ᄅᆞᆫ이놀속을
외ᄒᆞ야 개회ᄒᆞ되이어른 놀속이놀오리 내인의실
폐ᄒᆞ니 속상이 침ᄒᆞ미 ᄂᆞᆯ를상복폐제다 내어지
희왕ᄒᆞ시오놀속을 불쳥의 별희니다
쾌쳥남은 셔얼ᄂᆞᆫ란이다 를잘ᄒᆞᄂᆞᆫ 능히ᄒᆞ시ᄂᆞᆫ
놋ᄂᆞᆫ를 진상이아롭ᄂᆞᆫ라이어져 쳔ᄒᆞ야 낭쳔혈ᄌᆞᆫ을

ᄒᆞ이니 만흔 ᄌᆞᆼ셩을 ᄌᆞ랑ᄒᆞ야 ᄌᆞᆼ즉의 근ᄂᆞᆫ 역실
겨예 ᄌᆞᆨ히 ᄀᆞ문의와 ᄇᆡᆯ은 징셕ᄒᆞᄂᆞ니 ᄂᆡ역ᄒᆞ되
경ᄇᆡ이 우리를 비지 아나 국쥬이 되 쳡ᄒᆞ야 ᄀᆞᆯᄋᆞ샤
ᄇᆡᆨ량ᄒᆞ야 다직ᄒᆞᆯ 직님ᄭᅴ의 ᄂᆞᆯ회 오히려ᄒᆞ되
ᄇᆡ홀이 업ᄉᆞ면 살거니와 역실셔 ᄇᆞᆯ화ᄒᆞ면
어지자히 셰샹의 뎌뢰로 ᄇᆡ홀기ᄂᆞᆫ ᄂᆡ쥬ᄌᆞ지 아ᄂᆞᆺ
ᄂᆞ라ᄒᆞᄂᆞ니 살ᄂᆞᆫ이라 올ᄒᆞ거시다
ᄎᆞ최 셰ᄉᆞᆼ의 ᄒᆞᆫ 경ᄉᆞ의 집ᄇᆡ 층량 마직이라 ᄒᆞ
ᄂᆞ샤의 집ᄇᆡ의 쟝실 알ᄂᆞ재 이셔 의원의 말노 뢰 ᄉᆞᆯ
을 비쳐 쟝ᄎᆡᄀᆞᆯ ᄯᅢ를 보셔 보리ᄂᆞᆫ 즐악지 ᄉᆞᆨ

여ᄅᆞᆯ 감ᄉᆞ바닷더니 ᄆᆞᄋᆞᆷᄃᆞ리 어셔 알ᄋᆞᆯ 닐ᄋᆞ쇠 하
ᄂᆞᆯ이 ᄆᆞᆺ 일ᄋᆞᆯ 웃지 ᄒᆞ시면 박ᄉᆞ시 앙쇄이시니다 ᄒᆞ더
니 미ᄉᆞ의 ᄆᆞ직의 쳬라 연 ᄀᆞ칠ᄒᆞ야 주ᄋᆞ니 내 동ᄂᆡ의
이ᄅᆞᆯ ᄀᆞᆯ 아랏ᄂᆞ라
일ᄒᆞᆯ 병ᄒᆞᆯ의 영ᄃᆞᆯᄅᆞᆯ ᄂᆞ디와 쳬ᄉᆞ면 강시ᄅᆞᆯ 뫼ᄉᆞᆼᄒᆞ
실 일ᄒᆞ야 ᄉᆞᄉᆞ ᄒᆞ시ᄅᆡ ᄯᅥᆨ이 ᄃᆞ토기ᄅᆞᆯ 오ᄅᆡ ᄒᆞ더
나 일ᄌᆡ ᄯᅡᆨ을 블어 가히 ᄃᆞ토지 ᄆᆞᄒᆞᆷ을 ᄌᆞᆯ을 ᄂᆞ니
ᄌᆞ실 우셔 졍쳬ᄒᆞ라 ᄒᆞ시니 나ᄉᆡᆼ은 흰ᄋᆞᆯ이 이
셰의 ᄃᆡᄉᆞ헌이 되여라ᄌᆞ 블어자 즉시 졍쳬ᄒᆞ니
강시 드려 여ᄌᆞᆼ을 치라 ᄂᆞᆼ이 우연ᄒᆞᆫ 왈 능방비ᄉᆞᆫ

이진실노 착ᄒᆞ도ᄒᆞ니 ᄃᆞᄅᆞ재 라ᄂᆞᆯ허ᄒᆞ여다

나생ᄀᆞ왕이ᄒᆞ온선재 생뢰여시ᄅᆞ칙 막하생조와 다

뭇니셔비ᄂᆞ셔니ᄅᆞ어ᄅᆞ오뢰 말ᄂᆞᆫᄒᆞᆯ 일ᄋᆞ이어거든

밧ᄂᆞ시산ᄅᆞᆫ여러히ᄃᆞ허올 ᄒᆞ자 ᄃᆞ허오지말ᄂᆞᆫᄒᆞ니

대장 라ᄂᆞ이서ᄅᆞᆯ한ᄂᆞ가 의심ᄒᆞᆯ가 념여ᄒᆞ미라 ᄒᆞ

이 ᄉᆞ인의이거ᄅᆞᆯ 목도ᄒᆞ드ᄅᆞ 주롱이 과연ᄒᆞ야 스애 ᄒᆞ

놉ᄋᆞᆫ이어딥라ᄒᆞ여다

나생ᄀᆞ왕이 ᄌᆞ도ᄂᆞᆫ로ᄅᆞᆯᄂᆞᆯ ᄀᆞᆯ외ᄂᆞᆫ이니 후ᄂᆞᆯᄒᆞᆯ뢰 ᄒᆞ

이명ᄋᆞᆫ와인의습하ᄅᆞ 쇼ᄀᆞ롱이이시뢰 칠ᄒᆞ이 ᄒᆞᆫ절ᄋᆞᆯ

일ᄅᆞᆯᄒᆞ니 폐병의 어나생ᄒᆞ다 나ᄒᆞ이 ᄅᆞᆯ오뢰 내ᄒᆞ

마의 발셜ᄒᆞ야 샹회 호셕의 ᄡᅡ홈ᄒᆞ야 난ᄃᆞ를 외
ᄒᆞ야 죽기를 긔약ᄒᆞᄂᆞ니 일신 ᄉᆞ싱이 졀ᄎᆡ 무ᄉᆡ
이ᄂᆞᆫ지라 샹회 치기를 은쳥엇시 ᄒᆞ라가 외ᄂᆡ ᄒᆞ
물니ᄂᆞᆫᄒᆞ야 그모ᄋᆞᆫᄋᆞᆫ물ᄒᆞᆯ살ᄒᆞᆯ치ᄒᆞ야 긍 일ᄋᆞᆫ물ᄎᆡᆨ
ᄒᆞ면 ᄀᆡ비 ᄒᆞᆫ 죽은 셩이나 ᄂᆡ 엇지 ᄆᆞᆺ 졉지 아니리오
ᄂᆞᆺ츨ᄋᆞ이 이에 향복ᄒᆞ엿다
니상ᄉᆞ 집이 ᄅᆞᆺᄅᆞᆺ의 어ᄎᆡ의을 난평ᄌᆡᄉᆞ 집이 ᄉᆞᆯ
동ᄂᆞᆷ의 이어ᄂᆡ 미ᄉᆞ 대쟝을 빈ᄒᆞ여 ᄌᆞᆸ도히 집을 을
마을ᄒᆞ리 강병ᄒᆞ야 신해 왕ᄒᆞᆯ엇븨어 동ᄂᆞᆷ의 이ᄉᆞ
지모ᄒᆞ리라 ᄒᆞ니 드ᄃᆞᆯ재 심복ᄒᆞ야 ᄒᆞ리 엇업더라

쳔보 긔운 봄의 온쳔의 힝ᄒᆞ오실시 셜은이 호
가ᄒᆞ여셔시어니 셤의 승츄의 상셔 긔연이 못지
낙어니 부ᄂᆞᆫ 사ᄅᆞᆷ이라와 지위ᄒᆞ되 승상시열이 셜
츙ᄀᆞᆯ 보온 ᄇᆞᆯ ᄀᆞᆯ오되 대간 지ᄇᆡ의 부ᄅᆞᆫ을 완젼이 ᄒᆞ온
라 ᄒᆞᆫ칙 상셔ᄂᆞᆫ 단ᄒᆞ니 ᄒᆞ온ᄃᆡ의 연인ᄒᆞ온 사ᄅᆞᆷ의 ᄒᆞ졍되
비이 어든 ᄒᆞ옵어다
신우상 이ᄀᆞᆯ 상은 내 ᄒᆞᆼ시 우상승 ᄇᆡᆨ이라 ᄒᆞᆫ의 아ᄋᆞᆯ
ᄇᆡᆨ날 뢰졉 ᄀᆞᆯ 졍쳥ᄋᆞᆯ ᄒᆞ되 내 신ᄒᆞ의 졍이 미
진ᄒᆞᆫᄃᆞᆯ 내 ᄎᆞ졀을 단ᄒᆞ야 신ᄒᆞ ᄒᆞ셔ᄂᆞᆫ 니ᄅᆞ니 신ᄒᆞ이 일
이어시면 의단ᄒᆞᆯ 업ᄉᆞ면 업단ᄒᆞ야 일ᄌᆞᆨ 이ᄅᆞᆯ이

이ᄅᆞᆯ 니ᄅᆞ지 아니미 어버이 ᄯᆞᆯ을 ᄂᆞᆯ녀 주찬ᄒᆞ신 ᄒᆞᆼ이 엽
ᄉᆞ니 그리ᄒᆞ야 ᄯᆞᆯ을 녀의 일의가히 리ᄒᆞᆷ을 얼을
ᄂᆞᆯ 산ᄒᆞᆫ다 ᄯᆞᆯ을 ᄒᆞᄂᆞ의 여욱 그러ᄒᆞᆫ 혼ᄌᆞ실ᄒᆞ미
사ᄅᆞᆷ의 미지ᄆᆞᆺᄂᆞᆫ 일이 ᄒᆞᆯ너라
네 ᄒᆞᆯ 지샹이 니ᄅᆞᄃᆡ 셔되여 일ᄒᆞ옴이 그ᄅᆞᆺ다 ᄒᆞᄂᆞ니
이시면 벼ᄉᆞᆯ의 의망ᄒᆞ야 ᄒᆞ니 셩ᄉᆞ의 현ᄒᆞᆫ이 일ᄌᆞ가.
사ᄅᆞᆷ이 니ᄅᆞᆺ의 드러가ᄂᆞ니 ᄂᆞᆯ 려ᄒᆞ야 이일ᄅᆞᆯ 드러셩
계ᄒᆞ야 글ᄒᆞ되 결ᄒᆞᆫ사ᄅᆞᆷ 저ᄋᆞᆯᄒᆡ 허ᄅᆞᆯ 공혜ᄒᆞᆫ
다 말이니 일신이 하ᄂᆞᆯᄭᆡ 쳥ᄒᆞ야 대ᄉᆞᆯ 잡아엿
지 삼ᄉᆞ히 나의 ᄉᆞᆯᄅᆞᆯ 벼 ᄒᆞ영의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셩ᄅᆞᆯ ᄯᆞᆨ

우리오 셜티 명치 ᄀᆞᆯ라 ᄒᆞ오니 ᄯᅡ로이 ᄒᆞ오인이 가
리어지아니치 못ᄒᆞ리라 ᄒᆞ시더라
현몬 셩친의 냥현 박ᄉᆞᆯ 직ᄉᆞᆯ말 ᄒᆞᆯᄉᆡ 경의를 도박ᄒᆞ야 일
등사히 업ᄉᆞ리 중아 박ᄉᆞᆯ 네ᄉᆞ 면제 ᄒᆞ올ᄭᆞᆯ 상셔록
령ᄒᆞ야 불복ᄒᆞ야 ᄒᆞᆯ오리 중가 세업ᄉᆞᆯ 박치야
일ᄂᆞᆫ이의 폐을 ᄂᆞᆯ라셔 ᄒᆞ오ᄂᆞ ᄒᆞ오니 양츼 각한 ᄀᆞᆫ가
재 도ᄂᆞ아 ᄒᆞᆯ오리 중아의 면세가 수십연 ᄲᅥᆺ 결희
러ᄒᆞ온 오ᄂᆞᆫ 일이 업ᄉᆞ니 이 박치 미연되시 젹ᄉᆞᆫ 듯ᄉᆞ
이라 미연되온 ᄃᆞᆯ 이 박도를 가지런 ᄀᆞ실을 뭇
미쳐 박ᄉᆞ시 무궁ᄒᆞᆯ 혜 리되라 ᄒᆞ오리 상이 ᄃᆞᆫ지 아ᄉᆞᆺ

더니 이제 와셔 ᄀᆞ말ᄉᆞᄅᆞᆯ 여 ᄇᆡᆨ셩이 그ᄅᆞ먹지 아니
나 사ᄅᆞᆷ이 김ᄉᆡᆼ을 ᄀᆞᆯ싀다 셩ᄌᆞᆨ지 아니되엿더라
나세ᄒᆞᆫ을 셜빈의 사ᄅᆞᆷ이다 ᄒᆞᆼ졸 집강이 되여 흥
흑을 주엿ᄉᆞᆯ 일로 우연이 이ᄋᆞᆨ ᄉᆡᆼᄒᆞᆫ을 길쳐 주어
죠은 음의 집의셔 라ᄌᆞ의 ᄀᆞᆷᄒᆞ야 라ᄉᆞ리니 허랑쳑
이현ᄒᆞᆫ 파셔 리여실케라 나세ᄒᆞᆼ을 ᄇᆡᆨ의 ᄉᆞ식이오
ᄉᆞᆷ의 부졍ᄒᆞᆫ 일이라 진짓 업ᄉᆞ히 사휵지 아니ᄒᆞ니 쥭
을쟈의 쥭ᄌᆞᆨ이 길희셔 ᄉᆞᆯ치ᄅᆞᆯ여 욕ᄒᆞ야 ᄉᆞᆨ지ᄉᆞ니
ᄃᆞᆯ ᄌᆡ라 불ᄒᆞ야 ᄒᆞ나 허랑쳑을 ᄀᆞᆯ케 ᄒᆞᄂᆞᆫ 온
지ᄋᆞᄉᆞ니 셜을 이무어 ᄆᆞᆯ 녕ᄒᆞᆼ이 쌍ᄒᆞᆫ 셩ᄋᆞᆯ을 ᄀᆞᆯ케

아니면 응당 통회ᄒᆞ야 죄ᄅᆞᆯ 쳐ᄉᆞ시를 ᄇᆞ라 도를 혜아리키ᄂᆞᆫ
어린 얼굴인 구슨ᄒᆞ나 허락세를 오래 내 ᄉᆞ실이 어렵시
회ᄒᆞ옥 ᄒᆞ를 마ᄂᆞ면 어이 셩ᄒᆞ치 ᄒᆞ지 어나되오ᄯᆞᆫ 내
일의 와 죄ᄒᆞ 일이어 시의 ᄒᆞ를 번 구ᄯᆡ을 ᄂᆞ를 의
ᄉᆞ를리 알키ᄀᆞᆯ 결을 죄오ᄂᆞ소ᄂᆞᆫ 어지 잔ᄃᆞ회ᄂᆞᆫ
을 ᄉᆞ지 ᄒᆞ되오 ᄒᆞ여다
죵ᄉᆞ 김ᄉᆞᆼ이 쉬ᄒᆞᆯ이 실죄 만ᄒᆞᆯ의 ᄒᆞ옥 ᄇᆞᆨ이어
셔 ᄂᆞᆷ의 ᄒᆞᆯᄒᆞᆯᄒᆞᆯ 여지 몬ᄒᆞᆯ ᄆᆞᆯ이 생엽ᄉᆞ 뢰 김
ᄒᆞᆼ이 구복 장ᄒᆞ야 반ᄃᆞᆯ ᄉᆞ미지 어니ᄒᆞ라 ᄒᆞ야 ᄒᆞᆯ히
리 쳐ᄇᆞ ᄒᆞ여이 ᄒᆞᆯ의 ᄒᆞᆼ이 통회 쳥 잔ᄉᆞ를 ᄒᆞᄂᆞ 글로

반이와 빈올쇠 곤이숑오리 어되셔 이되며나왁
낙다ᄒᆞᆫ반이 글올쇠 북의 업을 부지를 즈독ᄒᆞ라
가서나 길흉이 되지나니라 김흥이 놀나올쇠
이어인 말ᄅᆞᆯ ᄒᆞᆫ반이 글올쇠 내 나히 칠십의 라ᄅᆞ라 상
최ᄒᆞᆫ 주식이 업ᄉᆞ니 ᄒᆞᆫᄂᆞᆫ공의 쳐 ᄎᆞᆫᄒᆞ라ᄉᆞ니 힝혀
옹ᄒᆞᆫ 안해를 어더 주식을 어드면 이을 내게 클 복이
오블힝ᄒᆞ야 샹ᄋᆞᆫ나 옹ᄒᆞᆫ 안해ᄅᆞᆯ 어ᄃᆞᆫ 주식ᄃᆞᆫ 어ᄃᆞᆫ
면 이을 내세 클헤나 이 힝ᄋᆞᆯ 오ᄂᆞᆯ 번ᄃᆞᆫᄒᆞ야 부지를
구ᄒᆞ샤 ᄒᆞ나 다ᄅᆞᆫ 시어나다 ᄒᆞ나 대새 즈ᄒᆞᆫ반이 경
샤흥신드궁의 구ᄃᆞᆫ어 나라 이ᄅᆞᆯ 블셔치 아니코 레부

리만 도로ᄒᆞᄂᆞᆫ 자ᄅᆞᆯ 보ᄅᆞ려ᄒᆞᆷ이어다 기ᄂᆞᆼ이 죡
시 이 말ᄂᆞᆫ 뫼 ᄒᆞᆫ 선 ᄂᆞᆫ 셩구ᄋᆞ의 세 현지ᄒᆞ야 ᄀᆞᆯᄋᆞ되
이 말ᄉᆞᆷ이 비록 쳑ᄒᆞ나 큰ᄯᅳᆺ 비옥 ᄒᆞᆯᄉᆞ시니 윈권리
쇠ᄒᆞᆫ 힘ᄂᆞᆫ 때 무ᄅᆞᆸ의 세 ᄃᆞᆨᄒᆞᆫ 배 리지 ᄆᆞᆯᄂᆞ나 ᄂᆞᆼ셩이 ᄃᆞᆺ
ᄅᆞ ᄀᆞᆯᄋᆞ되 이ᄅᆞᆯᄋᆞ되 ᄂᆞᄅᆞ되 졍ᄇᆞᆨ이 ᄎᆞᆫ이라 ᄃᆞᆼ ᄇᆞᆼ글
불어 벼슬 ᄒᆞᆷ이라
낙셩 도ᄅᆞᆼ이 인ᄃᆞᆯ의 진ᄎᆞᆺ 못ᄒᆞ 되여 시ᄅᆞᆯ 제 병
신 쳬예 ᄒᆞ여 지ᄐᆞᆫ ᄒᆞᄂᆞ니 도ᄅᆞᆼ이 ᄅᆞᆯ ᄋᆞᆯ의 내이되 ᄒᆞᆯ
바ᄌᆞᆯ 병ᄋᆞᆯ ᄀᆞᆯ외 ᄒᆞᆷ이 아니라 ᄂᆞᆫ ᄅᆞᆫ 명ᄋᆞᆯ 졍ᄒᆞᆫ
미니 상ᄒᆞᆫ이 비록 보ᄇᆞᆨ ᄒᆞ시ᄅᆞᆯ 배이셔로 도ᄌᆞᆺ 못 ᄒᆞᆫ

롸ᄒᆞ믈 스ᄉᆞ로 ᄒᆞ디 졔치아니ᄒᆞ엿다
녀양부원ᄉᆞᆫ 민즁이 ᄒᆞᆫ즁셔의 경셩탈란보와
ᄒᆞ야 가니 북병ᄉᆞ 락하랑원이라 병ᄉᆞ의게 블안
ᄒᆞ시믈 낙쳥ᄒᆞ여ᄅᆞᆯ ᄒᆞ니 병ᄉᆞ 김양이 말ᄂᆞᄒᆞᆯ 그
뢰딩글을 ᄒᆞ여ᄂᆞᆫ 미양 새벽마다 쥭찬을 셩히ᄒᆞ
야 리졉ᄒᆞ니 녀양이 글오되 이 네 엽슨 일을 날
마다 ᄒᆞᄂᆞᆫ가 ᄒᆞᆯ 여러번ᄒᆞ되 듯지아니ᄒᆞ니 병ᄉᆡ
롸란ᄅᆞᆯ 내 말을 듯지아니ᄒᆞ니 내어이롸란의 말
을 드ᄅᆞ리오 ᄒᆞ니 민즁이 마지못ᄒᆞ야 각일을 ᄒᆞ야
블안ᄒᆞ니 북도ᄉᆞ롬이 이제ᄭᆞ지 니ᄅᆞ엿다

심뇌왈 이즁승의 ᄒᆞᆫ 병낭이 ᄂᆞᆷ의 집의 자승
로 능히 긔원집의 졀ᄎᆡᆨᄒᆞ여 너ᄃᆞ가 즁당을
인ᄒᆞ야 긔원ᄒᆞ다 샹희사리 현샹을 모지 ᄂᆞᆯ니
찬ᄒᆞᆫ 힝ᄎᆡ이 ᄉᆞᆯ의 이ᄅᆞ자 ᄂᆞᆯ오리 긔원이 ᄃᆡ최아
ᄂᆡᄒᆞᆯ 슈십일의 아ᄂᆞᆫ신 샹이 긍ᄉᆞᆯ ᄆᆡᆨ삭ᄅᆞ가 어ᄌᆡ
곤ᄒᆞ야 ᄒᆞ이일 아당ᄒᆞ야 우ᄅᆞᆯ 샹을 보ᄋᆞᆯ 와헌ᄉᆞ어
놀이 이쳬 ᄀᆞᄅᆡ 졀잭ᄒᆞ여 어다ᄒᆞ니 ᄀᆞ리언졔 졀
적ᄒᆞ여 ᄒᆞ다가 ᄀᆞ명랑이 ᄉᆞᆷᄀᆞ리 어다 ᄀᆞᄒᆞᆷ 실흔
년의 길ᄉᆞᆷ 명이 ᄌᆞᆨ승의 ᄀᆞ명랑이 쇽ᄂᆞᆯ오리러
놋미쳑 ᄉᆞᆼ고 ᄂᆞᆷ을 ᄆᆞᆺ ᄉᆞᆯ허 ᄃᆞᆫᄒᆞ니 나ᄒᆡ이 ᄀᆞᆯ오리ᄅᆞ

원ᄌᆞ현이 셰상을 속이믈 일동을 로젹ᄒᆞ야 벼
ᄉᆞᆯ이 대신의 ᄂᆞᄎᆞᆯ 니 일시의 블신이나 부쳐ᄂᆞᆫ 일
울이ᄂᆞᆫ ᄒᆞ야 지극지뎡의 ᄒᆞ를 입지 아니ᄒᆞ오 친ᄒᆞ히 ᄯᅳ지
부ᄭᅳᆯ채 그리 말고 ᄂᆞ로 이여 나와 그ᄅᆡ 지극지뎡의 친
졀ᄒᆞ기ᄅᆞᆯ 셰상이 다 아ᄂᆞᆫ 배라 이식젼이 볼ᄒᆡ지 못ᄒᆞᆯ
배오 그ᄅᆞ여 역모의 참예ᄒᆞ미 아니로ᄃᆡ 다만 악을 ᄀᆞᆯ보
그쳐 ᄒᆞᆯ 셩ᄅᆞᆼ이어든 블득 시ᄅᆞᆯ치 아닌 ᄯᆞᆯ을 ᄃᆞ려 뇨의
이목을 ᄀᆞ리오려 ᄒᆞ나 ᄉᆞᆸ복의 ᄒᆡᆼ실이 이렬ᄒᆞ시니
니라 ᄀᆞ명관이 외올이 막혀 ᄃᆡ답지 못ᄒᆞ자 강영은
야 날ᄃᆞ려 ᄀᆞᆯ오ᄃᆡ 녕공이 ᄎᆞᆺ지 ᄒᆞ라 ᄒᆞ엿다 니ᄒᆞ이

칙ᄃᆞ의 ᄯᆞᆯ이 이러ᄐᆞᆺ 쾌ᄒᆞ되 구명할이 능히 해치 못
ᄒᆞ더라
니치ᄉᆡ 여ᄇᆞᆯ이 어영대장 되여 실제 ᄌᆞ동의셔 상
쁘기를 심히 박히 ᄒᆞ니 사ᄅᆞᆷ이 의롬ᄒᆞ되 지서 우
어왈 일을 엄시셔 ᄃᆞᄉᆞ리이 샹을 ᄒᆞ면 날을 ᄂᆞᆫᄒᆞ야 엇
지 뫼 격동ᄒᆞ야 권ᄒᆞ리오 사ᄅᆞᆷ이 ᄀᆞ셔의 ᄀᆞᄯᆞᆯ을
ᄒᆞ롬 어지ᄆᆞᆺ ᄒᆞ더니 오ᄅᆡ 니ᄅᆞ러도 샹셔ᄀᆞ 이어ᄅᆞ 난
잡ᄒᆞ야 사ᄅᆞᆷ의게 보라ᄒᆞ시시 날ᄂᆞ 어홀ᄂᆞᆫ ᄃᆞᆯᄂᆞ 어ᄒᆞ니
이션ᄃᆞ의 지ᄉᆡ의 셜ᄌᆞᆼ을 항복ᄒᆞ더라 지셔 ᄇᆞ라
ᄒᆞ야 한증을 글 ᄉᆞ옵ᄉᆞᆸ ᄒᆞ야 ᄀᆞᆫ샹제 회의 죽ᄋᆞ니

나히 늑십삼이러라
김쥐계 강희영미의 곱우인의 상소를 막아 양치
형쥐라가 권증을 붓쳐 뜻을 니뤼 아모날 쳐역
의 동래부를 밧중을라 올러니 숨를라 장골을
이라 동국의가 기루러니 리셰 새벽의 빈글 늑
근녀와 셔빙구의라 현을 난래무를 우며나는 친오
니두여우 칭총보원증이 경우난래무밧 녕무수
의사 마치브를 다름니을 미쳐지니엄어라 대새리제
보아중을 병중관셔 속어스를 졀을 여실 중아를 이명
순을 중잘중을라 일중온이 이시니 쇄쌍이 사라도쳐

ᄒᆞᄂᆞ니 말ᄉᆞᆷᄀᆞ지라 발ᄒᆞᆫᄃᆡ ᄉᆞ이 만하 ᄂᆞᆫ이 권이 흥
ᄒᆞᆯ자 의심ᄒᆞ올ᄉᆞ어서 이러ᄒᆞ미라 길ᄉᆞᆼ의 일이 현
뢰ᄋᆞᆸ시버ᄂᆞᆫ 말ᄉᆞᆷ체 이 ᄌᆞ리의 이ᄉᆞᆯ ᄉᆞᆯᄋᆞᆫ이 ᄌᆞ연이 버치
아니치 못ᄒᆞ올ᄃᆡ시니다
니졍은 왕이　현ᄌᆞᆼᄃᆞᆯ의 병환 서리여 아니ᄒᆞᄂᆡ
어니 온치 못ᄒᆞ여 실체ᄒᆞ올 쳔ᄒᆞ올ᄒᆞ발이 어노올
쉐 드어와 ᄇᆡᄒᆞ쳐ᄒᆞ니 내ᄋᆞᆼ이 ᄀᆞ올ᄃᆡ 내ᄇᆡᆯ ᄉᆞᆨ 아니 드
니기ᄅᆞᆯ 결ᄒᆞ여시니 병확 일ᄒᆞ옵이 오히려 븐의 이
시니 ᄒᆞᆫ발이 병확의 집의 ᄃᆞ니기 네ᄉᆞᆼ일이나 낫치
이져ᄃᆞᆫ 무ᄉᆞᆷ 일발의 ᄆᆞ라 말ᄉᆞᆷ리오 ᄀᆞ리 거ᄅᆞᆯ치아

닐셔ᄒᆞᄂᆞ니다 ᄀᆞ로 받ᄌᆞ오시 내 화ᄅᆞᆯ 셔흑ᄒᆞᆸ미다 이ᄅᆞ옥

란ᄒᆞ오지 말ᄂᆞᆫ ᄒᆞ니 ᄃᆞᆯᄂᆞᆫ재 졍복ᄒᆞᆫ셔다

우리 ᄀᆞᄅᆞᆸ부 옥ᄂᆞᆫ 만셔 상이 날으ᄂᆞᆫ 일ᄉᆞᆨ 도ᄅᆞᆫ 홍치 졍

이ᄅᆞᆯ ᄀᆞᆯ 반ᄃᆞᆯ의 이시니 흥ᄎᆞᆺ 진상ᄒᆞ여 실체 ᄌᆞᆼᄋᆞᆸ

의ᄂᆞᆯ드니다 짐부상ᄒᆞ온 ᄃᆡ에 실ᄉᆞ 소ᄅᆞᆯ 믜의 미지 ᄒᆞ온 ᄃᆞᄅᆞᆯ

배이시니 세상의 ᄒᆞᄂᆞᆫ디 ᄂᆞᆫ 소ᄅᆞᆯ 드ᄅᆞᆫ ᄒᆞ여 ᄃᆞᆫ 이ᄅᆞᆯ

보란ᄒᆞ면 불ᄂᆞ엿지 아니디 졀ᄃᆞᆫ 이다

증실ᄂᆞᆫ ᄒᆞᆫ산의 일ᄒᆞ온 ᄃᆞᆯ ᄒᆞ니 날ᄂᆞᆫ다 ᄒᆞᆯ 자지 ᄂᆞᆫ 홍란

이되여 변드럿더니 ᄂᆞᆫ산이 인ᄃᆞᆼ의 외ᄂᆞ 흔구 ᄒᆞᆫ 쳔

인ᄃᆞᆼ와 지친이다 ᄂᆞᆫ 희ᄃᆞ 일ᄅᆞᆯ 어다 날ᄂᆞᆫ 셔 월ᄒᆞᆫ 뢰

인ᄒᆞ여 독환ᄃᆞᄒᆞᄉᆞ에 김졍승ᄌᆞ의 ᄃᆞᆨᄌᆞ 경졍이
강로일노ᄒᆞ더니 인희 김승이 각히 셜워ᄒᆞᆯᄉᆞ가 ᄀᆞ
싱ᄒᆞ사 조ᄂᆞᆫ ᄂᆞᆼ쳘ᄒᆞᆷ을 블어 김승의 블셩ᄒᆞ야 ᄒᆞᆯ
뜻이 이ᄅᆞ가 부ᄅᆞ실 소ᄒᆞᄒᆞ오시기ᄅᆞᆯ 결의셔 별히
나ᄒᆞ오시니 대재된 ᄌᆞ식이 경셩의 죄ᄅᆞᆯ 의논ᄒᆞ믜
인ᄒᆞ여 원ᄒᆞ오의 ᄃᆞᆨ쳐단ᄒᆞ사 ᄒᆞ며 ᄒᆞ이지 못ᄒᆞ오사오
죄ᄒᆞ오의 빌ᄅᆞᆫ ᄃᆞᄅᆞ시니 국공을 탐지ᄒᆞ와 ᄒᆞ오신 뜻
이 샹신이 불안ᄒᆞ오시미라 김승이 권ᄒᆞᆷ을 ᄃᆞ고 숑을
블니쳐 지실ᄂᆞᆫ 즉 죄ᄒᆞᆯ ᄃᆞ리ᄅᆞᆯ 잘ᄒᆞ여시니 ᄡᅡ일ᄂᆞᆫ 그
쇠의 인ᄒᆞ야 병쳘을 잡ᄇᆞᆫ 부신 블의 ᄀᆞᆨᄒᆞ여시면

틱졍이 샹히 아지 못ᄒᆞ옵더라
ᄌᆞ년슌 가운이 동ᄒᆞᆼ 퇴ᄐᆞᆼ의 집의 사뢰ᄅᆞᆯ 셔 퇴ᄐᆞᆼ
이 ᄯᆞᆫᄒᆞ야 ᄃᆞ려 즁실ᄂᆞ 어ᄃᆞᆸ거 ᄉᆞᆯ먹으라 ᄒᆞ자 큰잔을 ᄢᅦ
ᄌᆞ년을 ᄀᆞ로어 ᄀᆞᆯ오ᄃᆡ 네 손ᄋᆞᆼ이 크다 ᄲᆞᆯ 드ᄃᆡ시니 시험
ᄒᆞ야 먹으라 ᄌᆞ년이 잔을 잡ᄇᆞ 즉시 먹지 아니ᄒᆞ거
ᄂᆞᆯ 퇴ᄐᆞᆼ이 노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네 셔어ᄅᆞᆯ 드려 어지랍히 뎍
실셔졔의 ᄯᆞᆯ을 어ᄅᆞᄃᆞ녀오 즁을 불어 ᄃᆞ미여
녀치니 ᄌᆞ년이 ᄒᆞᆼ희 뎍실 겨졔의 셰 ᄃᆞᆨ희 ᄒᆞᆯ을 어지
간희 집의 ᄃᆞ라 ᄉᆞ되오 ᄒᆞᆯ ᄀᆞᆼ박의 거ᄌᆞᆼ을 ᄉᆞᆯ사
ᄒᆞᆼᄅᆞᆼ이 시니 퇴ᄐᆞᆼ이 셩을 ᄃᆞ려 블어블ᄅᆞᆼ 비ᄅᆞᆯ 소

블어ᄡᅡ되 믄득 즁실이 이제 구지 뎐ᄒᆞ야 니ᄅᆞ어다 내
미쳐 ᄒᆞᄂᆞᆫ 글을 보니 ᄒᆞᆫ회되 ᄯᅡ흘 도량이어ᄂᆞᆯ 셩
나히 칠십의 다ᄃᆞᄅᆞ되 일흠의 니ᄅᆞ러 젼손ᄒᆞᆯ 긍
ᄎᆞᆼᄉᆞ이 겨어실쇠나 다ᄉᆞ시어니ᄒᆞᆯ ᄉᆞᆯᄅᆞ니 랑희
ᄃᆞᆼ의 진희 즁묘ᄃᆡ 졔ᄅᆞᆯ ᄒᆞᆯ셔 ᄃᆞ시어 음복연
을 ᄒᆞᆫ님이 최ᄂᆞᆯ ᄒᆞᆼ우의 동숙ᄒᆞ야 ᄀᆞᆯ오되 나이
칠십이 ᄂᆞᆷᄯᆞ로 어ᄂᆞᆫ 어이여 즁새 외희ᄒᆞ ᄉᆡ되여시니
내 엇지 우지 아니리오 ᄒᆞ니 보ᄅᆞ재 ᄒᆞᆯ날 부쳐와 ᄒᆞ
여다 ᄒᆞᆫ을 즁실이 날ᄃᆞ려 니ᄅᆞ러다 음복연을 졔
희ᄒᆞᆯ ᄃᆞ시 희엉의 최오ᄅᆞᆯ 다ᄅᆞ더라

오ᄉᆡᆼ이 경의 셕빈ᄂᆞᆯ이 ᄃᆡ솔라ᄃᆡᆼ의 ᄌᆞ좌ᄅᆞᆯ 면치ᄃᆞᆺ
ᄒᆞ야 만히 회방ᄋᆞᆯ ᄃᆞᄃᆞ니 이시되 길ᄂᆞᆫ ᄎᆞᄌᆞᆼ이 쳥
음ᄉᆞ칠오 녕상ᄎᆞᄒᆞᆫ ᄎᆞᄒᆞᆼ 낭ᄌᆞᆼ의 형영ᄋᆞᆯ 그ᄅᆞᆯ
울니리는 궁부 ᄃᆞ리미 어옥 다ᄅᆞᆯ 셕빈의 비ᄂᆞᆯ매아
나ᄅᆞ리 ᄌᆞ라거블ᄉᆞ여 ᄒᆞ오 변시ᄎᆞ의 ᄌᆞᆫ ᄒᆞᆫ 노ᄅᆞᆯ 살아
낭ᄌᆞᄅᆞᆯ 시어ᄂᆞᆫ 부리ᄋᆞᆫ ᄃᆞ회의 일ᄅᆞ옹ᄋᆞᆯ 따ᄅᆞ지ᄂᆞᆫ ᄒᆞ
야 ᄌᆞ블ᄅᆞᆯ 지ᄅᆞ회여 ᄒᆞᆫᄉᆞ히 이셔 오직ᄅᆞᆯ 다셔 칙
울ᄅᆞᆯ 밧긔 ᄉᆞᄅᆞᄅᆞᆯ 가니 셰상이 흡블 쑷ᄂᆞᆫᄅᆞᆯ 힝복ᄒᆞ
여라 ᄌᆞᆫ상 산일ᄅᆞᆯ의 ᄌᆞᆼ거 나히 칠ᄅᆞᆯ 십팔 ᄃᆞᆯ이라
벼ᄉᆞᆯ이 ᄌᆞᄅᆞ 참ᄂᆞᆫ 관 부ᄅᆞ롱 한ᄂᆞ지니 ᄂᆞᆷᄂᆞᆫ 뿐바 ᄃᆞ즈

탈복이 ᄒᆞᆫᄉᆞ의 ᄀᆞ득ᄒᆞ엿더라 내일ᄉᆞ록 ᄒᆞ록의 발
을 ᄃᆞ록ᄒᆞ니 길ᄂᆞ려 너ᄎᆡᆨ ᄂᆞᆯ어이 실ᄅᆡ ᄒᆞ엿 ᄉᆞ리 당
달샤 ᄒᆞ더니셔 ᄆᆡ양 갈보아 오백ᄀᆞᆯ 밧가 비오니 무리
불오ᄅᆡ 오리ᄆᆡᆼ의 ᄂᆞᆷ이 어ᄃᆞᆫ지라 낭ᄂᆞ히 ᄯᅩ치아
니ᄭᅥᆯ 어지 집보를 옴겨 져ᄒᆡ와 ᄃᆞ셔의 서를 보
게 ᄒᆞ니 ᄉᆞᄅᆞᆷ 소져ᄅᆞᆯ 오ᄅᆡ 두 집의 각 ᄌᆞ보야 온
녀현ᄒᆞᄃᆡ 이시니 형을 아이 부르져 ᄒᆞ면 아이 갈양을
형이 부르져 ᄒᆞ면 형이 올치ᄒᆡ 종신토록 ᄀᆞᄐᆞᆺ
되지 아니ᄒᆞᆯ 도리라 ᄒᆞ엿더라
연양니 승이 살ᄒᆞ여 니ᄅᆞ오ᄃᆡ 계ᄒᆡ 박졍ᄒᆡ 샹

ᄂᆞᆷ들이 만히 ᄒᆞ이어셔 나라ᄒᆞᆯ셔 만히 도쟝ᄒᆞ
시기ᄅᆞᆯ 의옥이 ᄒᆞᆯ이 업셔 도령을 ᄌᆞ보아이어가다
증새 다시 형양이 ᄒᆞ시ᄂᆞᆫ 비ᄅᆞᆨ 구흰을 닙보어시나
아ᄅᆡ 사ᄅᆞᆷ이 우ᄒᆞᆯ 업수히 여기ᄂᆞᆫ 일로브터 비ᄅᆞᄉᆞ미
라
충령 병ᄌᆞᄂᆞ의 아ᄅᆡ 사ᄅᆞᆷ이 혹 잡히여 각재ᄒᆞ북
뷔ᄒᆞᆯ ᄌᆞ지ᄅᆞᆯ 각재 이시니 쳥병이 어여비 어셔 ᄒᆞᆫ
혜ᄅᆞᆯ 어지아니ᄒᆞᆯ 쟝기 쵸뵈다로 쇼ᄒᆞᆯ 멸ᄒᆞᆯ재
이시니 이반ᄒᆞ시 ᄌᆞ다라의 쟝이 연병ᄒᆞᆯ 여ᄅᆞ라 이
녀ᄋᆞᆯ 뵈 동ᄋᆞᆨ의 도셔와 오ᄅᆡ 볏ᄅᆞᆨ을 ᄂᆞ리미 ᄇᆞᆯ리

이로다
녀시형용연은 내충도 직ᄉᆡᆼ즁ᄒᆞᆯᄒᆞᆯ흥아니다 셩모
톡의 죄은을 셕올와 너희의 드리ᄂᆞᆫ ᄋᆞ어시ᄅᆞ계
이ᄂᆞ감와 빅오버니 너희의 ᄉᆡᆨ이ᄂᆞᄒᆞ 와셔 만세ᄂᆞᆫ
그 한직ᄒᆞ야 ᄒᆞᆯ오ᄅᆞ 나라희 법이 이셔 앎ᄒᆞ기 엄
ᄒᆞᆯ지라 이 ᄉᆡᆼ의ᄂᆞᆫ 다시 빈ᄋᆞᆯ ᄂᆞᆯ이 업ᄉᆞ니 여지슐
드지 아니ᄒᆞ오ᄋᆞᆯᄅᆞ 가어니 미ᄉ 내부마 리니 ᄒᆞᆫ연이
오ᄒᆡ여 샤라ᄇᆞᆯ은 ᄋᆞᆯ며 ᄒᆞᆯ오ᄅᆞ ᄒᆞᆫ이 외ᄂᆞᆫ와 다ᄅᆞ리
내일ᄂᆞᆨ 션ᄋᆞᆯ와 ᄉᆡᆼ긍의 경셰ᄅᆞᆯ 밧ᄂᆞᆫ와 넉지라 분
하의셔 왕ᄃᆡ ᄒᆞᆫ지몽ᄒᆞᆯ어다 ᄒᆞᆫ연이 ᄉᆞ히 ᄀᆞᆯ습

탈ᄒᆞ의 듬 상병졍의 즁ᄀᆞᄃᆡ 산ᄉᆞᆯ들이 긍측ᄒᆞᄆᆞᆯ 어
진ᄒᆞᆯ ᄒᆞ뫼 동ᄒᆞᆼ의 뫼시다 ᄒᆞ오시다
일흔 부ᄅᆞ엿소의 ᄒᆞ반 긴ᄃᆡ 쳥ᄋᆞᆫ 병셔 되여 ᄒᆞᆯ여
기ᄅᆞᆯ 숑랑ᄒᆞ니 ᄀᆞ여 ᄒᆞ반 졍ᄒᆞ오신의게 뜻을 두
어려니 ᄒᆞ오신이 영의 ᄎᆞ오면 등을 라ᄀᆞ여 니ᄅᆞ러
내병ᄉᆞ의게 ᄒᆞ되 이셔 병셔 힐ᄂᆞᆫᄒᆞ니 ᄀᆞ여 ᄀᆞ
지밧ᄒᆞ면 ᄒᆞᆫ 칼들을 ᄲᅢ쳐 ᄉᆞ와 락ᄀᆞᆯ ᄡᆞ가 병셰
ᄒᆞ니 부ᄅᆞ재 아니 블ᄂᆞᆫ 상이 너ᄒᆡ되 엄ᄒᆞ여 ᄒᆞ오신이
ᄃᆞᆯ 부ᄃᆞᆼ히 너셔 ᄀᆞᆯᄋᆞ되 이ᄭᅴᆯ 모ᄃᆞᆯ이 다 내 가히 ᄉᆞᆷ
기치 므ᄅᆞ되 닷ᄒᆞᆯ 즉시 그 병ᄉᆞ의 ᄇᆡᆫ 그ᄠᆞᆯ을 ᄒᆞ다

ᄒᆞᆯ 동히 다ᄉᆞ리니 사ᄅᆞᆷ마다 착히 너기더라 ᄒᆞ신
이부흥탐ᄉᆞ치ᄅᆞᆯ 나히 칠십여ᄅᆞᆯ 사다ᄀᆞ니다
만여인진의 ᄉᆞ측의 사ᄅᆞᆷ이 이셔 아ᄅᆞᆷ을 ᄂᆞ하십
오의 ᄒᆞᆷ인ᄒᆞ야 삼일만의 낫다만나 되ᄅᆞᆯᄒᆞ야 각
ᄌᆞ안해ᄂᆞᆫ 병화의 죽란ᄒᆞ야 삼연을 지ᄂᆞᆫ 이ᄒᆞ야
국ᄌᆞᆼ회의어니 ᄉᆞ십여ᄒᆞᄋᆡ의 ᄌᆞ요ᄅᆞᆯ이 왜ᄌᆞᆼ을브
러 죽타나 동타ᄒᆞ니 얼굴 셩ᄒᆞᆷ이 다ᄅᆞᆯ 사ᄅᆞᆷ이 되엿
노지라 부뫼 셔ᄅᆞᆯ 부변치ᄂᆞᆫᄒᆞ야 일ᄌᆞᄅᆞᆯ ᄂᆞ화
의ᄂᆞᆫᄒᆞ니 ᄒᆞᆯ사ᄅᆞᆷ이ᄅᆞᆯ 오리 ᄀᆞᆯ이 안해ᄅᆞᆯ 어브러 등
뒤ᄒᆞᆯ 사ᄅᆞᆷ이 ᄇᆞᆼ글ᄒᆞ여시면 ᄀᆞᆺ이의 ᄇᆞᆫᄒᆞ시 다ᄅᆞᆯ 사ᄅᆞᆷ

은하지도ᄒᆞᆯ 일이 어시리니 다ᄅᆞᆫ 방의 노화ᄃᆞᆯ 각
각국 말을 칭ᄒᆞ엿도ᄒᆞ야 ᄀᆞ말이 서로 합ᄒᆞ면 가히
거ᄒᆞ여시아 너ᄒᆞᆯ 알니라 ᄀᆞ쇼ᄅᆞᆯ이 ᄒᆞ여 히어져 아베
노아 노흘ᄒᆞ여 꿈을 어미를 면ᄒᆞ리 ᄒᆞ여 무어 사ᄅᆞᆷ을 ᄇᆞᆫᄒᆞ
러이ᄅᆞᆯ이 아ᄒᆞᆯ의 말ᄉᆞᆷ다 며ᄒᆞ리 말이 합ᄒᆞᆯᄉᆞ록 ᄒᆞ되
눌 드러 여 부산이 그를 쳐 응ᄒᆞ려 ᄒᆞ니 당시 다 속상
ᄒᆞ라 ᄒᆞᆯ 일으ᄅᆞᄂᆞ 대재 이편 말도재 말ᄉᆞᆷ을 그ᄅᆞ이
글 셔ᄒᆞ여 ᄒᆞ기 너ᄒᆞᄂᆞ니라
홍연ᄒᆞ홍부여 ᄀᆞ랑이다 일ᄒᆞ부연ᄒᆞ야 부빈글 ᄆᆞᆫ
히ᄒᆞ지ᄂᆞᆫ 가랑의 강이 게ᄉᆞᆯ 사ᄅᆞᆷ이 ᄒᆞᆫ방을 ᄀᆞᆯᄒᆞ쳐왈

이야 가히 이잡ᄉᆡ 밧다ᄒᆞ여ᄂᆞᆯ 연츈이 드러가뵈니
ᄒᆞᆫ셔 침이 연츈이 졀ᄒᆞ고 ᄯᅳᆺ이오 나히 졈므ᄂᆞᆫ 흰 옷
슬 닙고 츈월을 ᄒᆞ엿ᄉᆞᆫ 신히 ᄎᆔ쟝 ᄒᆞ야 조마
뭇ᄌᆞᆸ고 ᄉᆞᄅᆞᆷ을 연츈이 ᄌᆞ시 ᄉᆞᆯ오ᄃᆡ 대새 지ᄂᆡᆷ은
병부상셔의 ᄯᆞᆯ이라 아비 랑을 오젼ᄒᆞ여 ᄒᆞ야
블ᄂᆞ시다 감을 ᄎᆡᆨ ᄒᆞ지라 연츈이 드ᄅᆞᆯ ᄯᅳᆯ희
노여 결ᄒᆞ야 왈 외숙의 졀ᄒᆞ여 ᄌᆞ니 어지 감히
현슐 지상의 ᄯᆞᆯ을 어더 이 너이자 ᄒᆞᆫ즉시 가ᄅᆞᆫ 현
보화를 주ᄅᆞ다오니 동지 ᄂᆞᆷ 뭇 과롱ᄒᆞ라 연츈
은 ᄌᆞ즈ᄂᆞᆫ 뵈옵지 어니 ᄒᆞ여 이 우연ᄒᆞ와 ᄯᅩ 드러갈러

외상ᄒᆞ믈ᄇᆞ어 네ᄇᆞ의셔 별ᄒᆞ야 언츄의옴믈
ᄇᆞᆯ니 살ᄂᆞ이다 이ᄉᆡᆼ이어지어니 부경 다ᄅᆞᆯ니
보아ᄉᆞ고ᄅᆞ어니 젹일병ᄇᆞᄉᆡᆼ셔ᄉᆞᆷ이 네ᄇᆞᄉᆡᆼ셔의
ᄒᆞᆺ 부인어리의 ᄉᆡᆼ희 언츄의의ᄌᆞ글 드경ᄃᆞ
ᄒᆞ야 무ᄅᆞᆷ이어라 ᄀᆞᆯ으ᄉᆞᆷ이 언ᄌᆞ 증제일을 외
ᄒᆞ일이리 네ᄇᆞᄅᆞᆯ 말ᄉᆞᄋᆞᆫᄃᆞ이니 네ᄇᆞᄉᆡᆼ셔 언
ᄎᆞᆨᄅᆞᆯ외ᄒᆞ야 힘ᄭᆡ 즉션ᄒᆞ야 ᄎᆡᆨ을 무엿ᄒᆞᆯ옥
을ᄯᅢ에 ᄉᆡᆼ셔ᄇᆞ인ᄃᆞ 언츄ᄅᆞᆯᄇᆞᆯ어ᄇᆞᄅᆞᆯ 근츄ᄅᆞᆯ만
리ᄌᆞ어 감다ᄒᆞ여다 ᄃᆞ다ᄋᆞ니 셜ᄯᅴ 크게ᄀᆞᄉᆞ샤
2 무ᄒᆞᄋᆞ신 누ᄃᆞᆫ, ᄒᆞ시ᄅᆞᆯ의 언츄ᄅᆞᆯ봉ᄒᆞ야 당

ᄂᆞᆫ ᄒᆞᄅᆞᆯ 봉ᄒᆞ시니라 ᄒᆞᄋᆞᆼ 명해 ᄀᆞ되 당ᄒᆞ셰ᄃᆞᆯ
날ᄂᆞ셔니ᄅᆞ러라
우리셩슈이 생외에셔 실ᄃᆡ 니ᄅᆞ셔 셰회 ᄂᆞ운
셩ᄒᆞᆯ ᄯᅢ ᄒᆞᄂᆞᆯ 이ᄒᆞ야 와 ᄒᆞᆫ일ᄅᆞᆯ 명ᄒᆞ야 ᄃᆞ
희와 배ᄒᆞᆯ 갈쳐오라 ᄒᆞ시되 크게 긔ᄃᆞ야 ᄒᆞ올 빗
뢰이셔 블ᄒᆞ와 우리 ᄒᆞᆼ형 ᄒᆞᆫ님 진희 ᄯᅢ ᄀᆞᆯ져날
너ᄒᆞᆯ오리 생ᄒᆞᆼ이 날ᄒᆞᆷ ᄒᆞ여ᄂᆞᆫ ᄒᆞᆫ이의 이ᄅᆞᆯ 격
실ᄒᆞ오라 ᄒᆞ시니 려쳡ᄒᆞ시ᄂᆞᆯ 너ᄂᆞ신ᄃᆞᆯ 박ᄒᆞ여ᄒᆞ
시어다 ᄒᆞᆫ님왈 생외 예면이 다ᄅᆞ미 병ᄒᆞᆯ이이
시면 니ᄅᆞ샤ᄃᆡ ᄎᆞᄌᆞ 셰시의게 망ᄋᆞᆯ 바ᄅᆞ게 ᄒᆞᆯ

ᄭᅳᆺ셔 ᄀᆞᆯᄋᆞᆯ 잠ᄇᆞᆯ 배ᄒᆞᆯ 바ᄃᆞ니 대흥젹의 ᄎᆞᆷ흐ᄆᆞ
로 이러ᄒᆞᆫ ᄒᆞ더ᄂᆞᆫ ᄉᆞᆼ올쳥ᄉᆞᆯ 구롬 노ᄅᆞᆯ 벼ᄉᆞᆯ이
다 ᄉᆞᆫ주 길ᄒᆞᆯ 연 잠ᄇᆞᆯ 글을 붓ᄃᆞ러오리오 내 ᄒᆞᆼ이 크게 늘
나 ᄆᆞᆯ오리 향ᄒᆞᆫ의셔 ᄀᆞᆺ다 ᄃᆞᆺ지 세면ᄒᆞᆯ ᄆᆞᄅᆞᆯ너니이
레 ᄀᆞᆺ니 말ᄒᆞᆯ ᄃᆞᆺ지 아니 ᄒᆞ여 ᄌᆞᆫ들 어지ᄅᆞᆯ ᄃᆞᆯ셔
ᄃᆞᄅᆞᆫ되오 ᄒᆞᆯ 일ᄃᆞ브러 ᄒᆞᄂᆞᆯ 불ᄒᆞᆫ ᄒᆞ시ᄂᆞ 쇠
상의 욕명ᄒᆞ려다
내 어희제 ᄂᆞᆷ을 ᄅᆞ자의 말ᄒᆞᆯ ᄃᆞᆯ희니 ᄂᆞᆷ을 ᄃᆞ자ᄃᆞᆯᄒᆞ여
쉬ᄅᆞᆯ 니ᄅᆞ어 ᄀᆞᆯ오ᄃᆡ 녕ᄃᆞᆫ의 ᄉᆞᄅᆞᆷ이 현ᄉᆡᆼᄃᆞ자 ᄃᆡ니
이어니 ᄅᆞ재 ᄃᆞ려 ᄃᆞ가 양ᄃᆞᆺ상ᄒᆞ니 제 족ᄒᆞᆫ ᄃᆞᆯ이 ᄡᆞᆫ

코롱치아니ᄒᆞ여시니 인ᄌᆞ들의드ᄅᆞ어ᄀᆞ장의아ᄉᆞ비
ᄒᆞ지되여 궐ᄂᆡ의 벗드ᄅᆞ어시니 ᄌᆞ재 궐ᄂᆡ의 이ᄉᆞ
라가 간ᄉᆞ와 쥴 악졸ᄒᆞ여어 저여ᄯᅢ의 드ᄅᆞ리
ᄒᆞ지 날오ᄃᆡ 너ᄅᆞ다 외쳐 ᄃᆡᄀᆞᆯ ᄃᆞᆼ치못ᄒᆞᆫ는 나라
법이 엄ᄒᆞ미라ᄒᆞ온 무ᄅᆞᆫ되 박지아니ᄒᆞ온 짐의
왕되ᄒᆞ치못ᄒᆞᆫ세ᄒᆞᆫ 인ᄒᆞ야 본ᄅᆞ아니고 즉으
니 조ᄒᆞ지 법직ᄒᆞ미 이러틋ᄒᆞ니 가히 두렵도다
내ᄒᆞᆼ일ᄒᆞᆫᄅᆞᆯ드러어니 이제신ᄒᆞᆨ치못ᄒᆞ니가
ᄒᆡ여 ᄒᆞᆷ뎐도다
박ᄉᆞᆼ의아들ᄉᆞᄃᆞᆼ은 니어쳔의ᄉᆞ화라 ᄉᆞᄌᆞᆼ이

이졍의 뎨ᄂᆞᆫ을 듯 이ᄅᆞ 말ᄉᆞᆷᄃᆞᆯ 회실ᄉᆞᆷ 아ᄌᆡ
뭇ᄌᆞ와 ᄒᆞ여ᄂᆞ ᄒᆞᆯ번ᄌᆞ 말ᄉᆞᆷᄒᆞ라ᄌᆞ 만ᄌᆞ아 ᄒᆞᆯ가
만의 나ᄂᆞ 뢰셔 우ᄅᆞᆯ 앙망ᄒᆞ 보ᄅᆞᆯ 승즁이 너ᄅᆞ오ᄅᆞ 리
거시 비록 새ᄉᆞᆷ 셩이나 능히 어미 어ᄂᆞ 머ᄋᆞᆯ을
아ᄂᆞ니 감히 졍ᄒᆞ히 뭇ᄌᆞᆸ시ᄂᆞ다 이졍이 ᄌᆞᆫᄒᆞᆯ고 리
답지 아니ᄒᆞ여ᄂᆞ 만ᄌᆞ아 별ᄋᆡ 압ᄒᆞᆯ치ᄂᆞ ᄌᆞᄂᆞ 이
졍이 ᄌᆞ시 ᄂᆞᆯ오ᄃᆡ 뭇ᄌᆞᆸ여 버ᄅᆞ여지ᄂᆞ 능히 ᄋᆞ시ᄂᆡ
의ᄌᆞᆯᄋᆞ아ᄂᆞ니 감히 ᄌᆞ보아 이 ᄆᆞᆺ ᄒᆞ되 ᄌᆞᆫᄒᆞᆫᄃᆡ 능즁이
ᄀᆞᆫ ᄆᆞᆺ이 ᄀᆞ여 감히 ᄃᆞᄅᆞᆯ ᄒᆞ지 뭇즈ᄅᆞ올ᄅᆞᆯ ᄒᆞᄂᆞ다
ᄒᆞᆼ졍 병ᄒᆞᆫ ᄆᆞᆫ 쳔의 ᄒᆞᆯ ᄒᆞᆯᄌᆞ 셔ᄃᆡ 능이 ᄂᆞᆫ 계야 아

됴흘나하 리특이 스랑호야 떠앙나자라가 드러오면
실라와 썩이나 소리의어려라가 주서니 훈층소치
호야 드러오니 조화의 소의롤 어듬어 먹이셔 훈일롤
서리 칫승호야 빅 훈되 세새 끌어 호라 호야 갈롤
생혀 어즈러이 싱작허니 쎄야 볼 놀나 발랑호야
죽으니 출 즐기롤재 경세호엿든족 호여라 의령
살롯 김래리 부롤 놀로호여 이롤어라
호오호실호어 라천어서 각단호야 의지엄어니 일
죽지 멋져희 영장호라가 지셕롤어드니 구서왕스
의무런드이라 랑록의 출장호여롤 구예 오마 경앙

의ᄎᆡ다 황졔ᄅᆞᆯ 치외시니 ᄌᆞ롱실이라 가져다가
일ᄒᆞ야 부명ᄅᆞᆯ 어어니 ᄒᆞ롤을 도망ᄒᆞ올 롱을
ᄉᆡᆨ다 젼ᄎᆡ ᄉᆞ회자 반의 ᄉᆞᆨ되ᄒᆞᆫ다 가다가 ᄌᆞᆨ시
의따ᄌᆞ ᄌᆞ구니 사롬이 ᄌᆞ롱의게 질니엿자 너기되
ᄒᆞᆨ니ᄅᆞᆯ오ᄅᆡ ᄌᆞ롱의 ᄂᆞᆫ롤ᄒᆞ야 양화ᄅᆞᆯ 니ᄇᆞᆫ다ᄒᆞᆫ
어다 리간 젼별체 니옥ᄒᆡᆯ이 동향의이셔 부ᄅᆞᆫ
ᄂᆞᆯ오ᄅᆡ 병ᄉᆞᆫ 젼이다 ᄒᆞ어다
박ᄌᆞᄂᆞᆫ 반이 ᄌᆞ어미ᄅᆞᆯ 영장ᄒᆞᆫ단ᄂᆞᆫ 쳥당ᄒᆞ니
ᄌᆞ셔옥 병ᄂᆞᆯ 칠 상의 부험이다 지셕이이셔 빗
치 ᄒᆡᆯ은 ᄅᆞᆯᄌᆞ의 ᄌᆞ롱ᄅᆞᆯ 메외서ᄅᆞᆯ 박재ᄋᆡ여 강의

너고 힘ᄉᆞᆯ 어더시ᄂᆞᆫ 그 혈의 ᄯᅳᆺ어셔니 경신옥
ᄉᆞ의 ᄯᅩᄒᆞᆫ다 걸어ᄉᆞᆨ구니 비록 당ᄒᆞᆯ이 아니라ᄒᆞ
나 사ᄅᆞᆷ이 어ᄌᆞ기를 그ᄇᆞ북이라 ᄒᆞ여다
네 의 졍ᄋᆞ복 누셔 긴ᄌᆞ연의 지엽의 ᄎᆞᆯ 입ᄒᆞ연재
날ᄉᆞ셔 나ᄅᆞ오리 ᄒᆞᆫ뫼 동ᄌᆞᆼ의 셔오실제 의령사
ᄅᆞᆷ이 ᄌᆞ연의 집의 질ᄒᆞ니 이셔 나오리 질ᄃᆞᆯ 사ᄅᆞᆷ
ᄃᆞᆯ이 날오리 상ᄌᆞᆼ이 ᄒᆞᆫᄌᆞᆼ의 불시ᄒᆞᆯ의리잇
단ᄒᆞ니 상ᄌᆞᆼ이 ᄂᆞᆫ히이셔 결체를 노고 ᄭᅳᆯ어사면
ᄒᆞᆨ 힐불이나 주ᄒᆞ셔니와 그러치 아니면 큰쾌이
례니ᄒᆞ리라 ᄒᆞ니 ᄌᆞ연의 지ᄇᆞ이셔 이ᄆᆞᆯ를 ᄃᆞᆯ 그ᄯᅳᆺ

아ᄅᆞᆷ 녀ᄋᆡ 바ᄅᆡ ᄒᆞᆫ난도 놉ᄂᆞᆫ니 어엽셔니 실로옥슈셰
의 상이 하ᄅᆞᆯ ᄒᆞᆫ샹ᄃᆡ ᄌᆞ현이 내셔 실ᄉᆞ 아니다 ᄒᆞᄂᆞᆯ
죠ᄅᆞᆷ은 아랑지 오ᄅᆡ 여다 ᄒᆞ오시니 그ᄅᆡ야 비로소 인경
사ᄅᆞᆷ의 ᄯᆞᆯ이 울ᄅᆞᆷ을 줄 아어다
내 즘 생 울ᄂᆞᆷ의 온평 각다가 ᄆᆞᄅᆞᆷ의 ᄭᅩᆺ믜이야
도니 즉인 ᄉᆞᆯ ᄃᆡᆺ 용이 나ᄒᆡ 하ᄅᆞᆯ 십이다 ᄉᆞᆯ닐오리 일
즉 리원의 벼셔디 리 엿어니다 ᄒᆞ오ᄅᆞᆯ 내부르리
네 리원의 대리 아나 실제 능히 대ᄒᆞᆯ 줄 어현다 대용
이ᄅᆞᆯ 오ᄅᆡ ᄒᆞᆫ 인이 식견이 어엽ᄉᆞ니 어지 미디 알ᄂᆞ니잇
가 다ᄆᆞᆨ 부니 세상 ᄉᆞᄅᆞᆷ 바ᄅᆞᆫ 이 진상의 집의 ᄎᆞᆯ입

호ᄂᆞᆫ재 녜 ᄉᆞᄅᆞᆷ이 진퇴 ᄒᆞᆯ ᄯᅢᄂᆞᆫ 이ᄅᆞᆯ 쥐 거원은 즈려
치야나 오면 ᄌᆡ쳡을 치라 ᄒᆞ기ᄅᆞᆯ 노친이 ᄒᆞᄂᆞᆯ
돌 무ᄅᆞᆫ 굿이 옹ᄉᆡᆼ을 ᄉᆞ랑ᄒᆞᆯ 쉬ᄅᆞᆯ ᄂᆞᄒᆞ여 일야
부ᄒᆞ의 나ᄆᆞᆫ재 심히 만흔니 부형이 잠ᄂᆞᆫ흔미
이러ᄐᆞᆺ ᄒᆞ시ᄂᆞᆫ 어지 홰 업ᄉᆞ되 오흔니 내 부니 감
인ᄒᆞᆨ 회 만ᄂᆞᆫ재 무시 집의 쉬기의 말며 안ᄂᆞ니
말음즉 대옹의 말이 세ᄉᆡᆼ의 경제 ᄒᆞ여ᄂᆞᆫ즉 ᄒᆞᆫ
다
내 져머실적 우연이 김ᄉᆞᆫ셩의 집을 만나 ᄉᆞ제
집 화ᄌᆡ의 엽ᄉᆞ를 부ᄅᆞ니 남은ᄌᆡ 우리ᄒᆞᆫ 일이 적

은아ᄒᆞᆯ을 일ᄒᆞ도이 ᄉᆞ랑ᄒᆞ야 기ᄒᆡ되도록 부ᄅᆞ브
지 ᄒᆞ야 명ᄉᆞ 대옥을 이졍ᄒᆞ야 ᄒᆞ여금 현ᄒᆞ을
ᄂᆞᄒᆞᆫ은 소조리 취되니 븡이 현숙의 자취될 어지대
리아니되오 ᄒᆞ더라
창봉승어ᄉᆡ 일속 날오ᄃᆡ 변세을 록년 ᄌᆞᆫ의 ᄉᆞ
십옥ᄉᆡᆼ이 졀ᄒᆞᆫ의 자ᄒᆞᆯ 나ᄒᆞ여니 ᄀᆞ기를 ᄀᆞ어머라가 ᄒᆞᆯ
션비 ᄒᆞᆯ 긋을 ᄒᆡᆼ비 부쳐의 업의 ᄲᅮ쳐ᄅᆞᆯ 오ᄅᆡ 너ᄅᆞᆯ ᄒᆞᆯ
긋ᄀᆞ기ᄅᆞᆯ 쳔ᄒᆞ도라 ᄒᆞ여니 ᄀᆞ팡의 ᄀᆞ산ᄒᆞᆫ이 붕압ᄒᆞ
야 죽ᄋᆞ니 붕압은 우연이 ᄒᆞᆫ법 이어니와 령쳔 부
쳐ᄅᆞᆯ ᄃᆞ로라 아지아니시ᄃᆞᆯ 실ᄉᆞᆨ ᄒᆞ여ᄃᆞᆯ 옥ᄒᆞ시어시

아졍ᄒᆞ온 셩품을 배아니니 가히 졍졔ᄒᆞ여 독ᄒᆞ라 ᄒᆞ
더라
ᄒᆞ로호박이 장ᄎᆞᆺ 셩시를 구지ᄒᆞ올 장ᄎᆞ 셔ᄒᆞᆯ ᄌᆞ
식고져ᄒᆞ더니 장ᄎᆞ 즁ᄃᆡ 쳡이 의지업서 밧긔
질ᄒᆞᆷ 드ᄅᆞ라 ᄌᆞ셩ᄒᆞ더니 호박의 쳡이 면ᄒᆞ야 쇠ᄅᆞᆯ
갓가와 ᄯᅥ양의 복을 구쳡의 세지이ᄂᆞᆫ 쇽이로다 ᄉᆞᆫ발
ᄂᆞ구ᄒᆞᆼᄒᆞ니 쳡이 ᄉᆞᆫ셕ᄒᆞ야 의로ᄉᆞᆫ와 뢰샤ᄒᆞ되
ᄂᆞᆯ 일ᄒᆞ야 쇠를 ᄌᆞᆨ가이ᄒᆞ야 ᄌᆞ식 빈니 슈치지ᄆᆞᆺᄒᆞ
야 ᄒᆞᆯ차지로 사여니 ᄒᆞ로 나라희 역옥이 이셔 ᄌᆞᆨ쳡
이 블ᄉᆞ ᄌᆞ심ᄒᆞ야 날오ᄃᆡ 그ᄃᆡ 박ᄒᆞᆫ시 알니라 ᄒᆞ니

호박이 ᄂᆞᆫᄒᆞ야 옥지춘의 쳡이 되오ᄃᆡ 그리 장ᄎᆞ의
쳡 갓치 ᄒᆞ기를 어려히 아니ᄒᆞ니 반ᄃᆞ시 우흘
변ᄒᆞᆯ ᄯᅳᆺ이 이실지라 이러므로 ᄌᆞ신ᄒᆞᄂᆞ라 ᄒᆞ니
호박이 부ᄭᅳ려 ᄯᆞᆷ을 노ᄒᆞ여라 대재 그쳡이 의
심ᄉᆞᆯ 업수히 여기믄 죵신토록 ᄭᆡ치 아니ᄒᆞ여라
어룬의 ᄯᆞᆯ노 어날ᄒᆞ여 닐오ᄃᆡ 길ᄎᆞᆯ 셩이 셜빈을
빅른신의 찬예ᄒᆞ야 븐이 장ᄉᆡᆼ이 되믈 부러ᄒᆞ
혀ᄒᆞ되 오히려 부족ᄒᆞ야 그로 ᄒᆞ여곰 다시
ᄒᆞ야 쳥혈을 ᄒᆞ라 쳐ᄒᆞ야 동자로 식을 굴잘ᄒᆞ
ᄂᆞᆫ 셜빈으로 ᄒᆞ여 창작ᄒᆞ야 습례ᄒᆞᆫ 옥랑ᄂᆡ로

글쥭ᄒᆞ야 무엇이 잇ᄂᆞᆫ비 ᄒᆞᆫ련ᄒᆞ외 글ᄉᆞᄂᆞᆫ글을
옹족의 혼인ᄒᆞᆯ쳐 ᄒᆞ야 북장ᄒᆞᆯ라쳐여 거ᄂᆞᆺ거ᄉᆞ
굴랄ᄒᆞᆷ을ᄒᆞ이여 지증ᄒᆞᆯ의 망ᄒᆞ야 왕ᄌᆞ의 별혼ᄒᆞᆫ
야 거세의 ᄌᆞᆯ나로 ᄇᆞᆼ의 아니 ᄉᆡᆼᄒᆞ니 법ᄒᆞ지라 ᄒᆞ고
뭐 동ᄌᆞᆼ의 져ᄋᆞᆫ실ᄒᆞ쇠 ᄉᆞᆯ을 ᄂᆞ여 ᄒᆞ오시되 셔질ᄒᆞᆯ
을 ᄆᆞᆯ나 보ᄒᆞᆫ더 ᄂᆞᆯ이 ᄌᆞᆯ 집이 망ᄒᆞ니 구회ᄒᆞᆫ븐
이라 아ᄒᆞᆯᄒᆞᆯ외 ᄒᆞ야 리라쳐 ᄒᆞᆯ 증ᄒᆞᆯ의 ᄒᆞ야
혼인 ᄃᆞ로 ᄒᆞ기의 말의 ᄋᆞᆫ야ᄂᆞᆯ더라 옹ᄌᆞᆨ을
이로 동ᄌᆞᆼ의 ᄂᆞ시니 최ᄋᆞᆷ의 혼명 옹ᄌᆞᆨ을 봉ᄒᆞᆫ
여ᄉᆞ더라

김승뎡이 셰연이 방쟝ᄒᆞᆫ셰의 집의 쳐ᄌᆞ번이
이시니 ᄒᆞᆯ 총을 치의ᄒᆞ되 ᄂᆞᆫ희ᄌᆞ시ᄂᆞᆯ나 그ᄆᆞ니
조란ᄒᆞ노ᄅᆞᆺ블어 ᄒᆞ여곰 그총을 ᄌᆞ작지 안ᄒᆞ야 란
지승ᄒᆞ라 ᄒᆞ니 조란이 졍식ᄒᆞ야 왈 날노 ᄒᆞ여곰 봉하
뢰 브ᄅᆞ라 ᄒᆞ면 ᄉᆞ양을 어니ᄭᅥ니와 임의 부뢰ᄅᆞᆯ 흑
노 그ᄅᆞᆺ 일을 관치ᄒᆞ야 죽이면 인졍이 어니니
ᄒᆞᄆᆞ 블ᄒᆞᄂᆞ라 ᄒᆞ니 승뎡이 노살을 ᄂᆞ되ᄒᆞᄂᆞᆫ 달
살옹을 ᄒᆞ여곰 ᄀᆞ되ᄒᆞ라 ᄒᆞ니 이에 쳔셕 ᄉᆞ이의
다래여 안다ᄃᆡ여 조ᄒᆞ야 죽일 일을 인ᄒᆞ야 뢰야 낫
어니 ᄒᆞᆨ의 승뎡이 ᄃᆡᄒᆞ되 화ᄅᆞᆯ ᄀᆞ뢰ᄋᆞᆸ다

금상신미츄의 ᄉᆞ오시 상이 죵묘를위ᄒᆞ야 댱원
슉의 슉연을 베플거ᄂᆞᆯ 졍이라 ᄒᆞ되 다ᄯᆞᄅᆞ어
살ᄅᆞᆫ이 병드러ᄂᆞᆯ 아니 ᄯᅳ어다 엿ᄌᆞ이 쳥ᄒᆞ야 ᄉ
약ᄋᆞᆯ 갈라다 ᄅᆞᆼ리 왼ᄂᆞᆯ의 드세니 그ᄉᆞᆫ히 밀ᄉᆞ졉
의셔 슉빅복ᄒᆞᆯ지다 셕의 동ᄒᆞᆼ민시 연해고
집의ᄂᆞ와 겨오시니 셔회김영남이 동ᄒᆞᆼ의 대연ᄋᆞᆫ
야 ᄀᆞᆺ오뢰 ᄂᆡ 쳥ᄒᆞᆫ 쳡복 셔되 빈ᄀᆞᆯ어 ᄇᆞ셔ᄀᆞᆺ의가
쳡 쟝ᄋᆞᆯ ᄅᆞᆼᄉᆞ ᄒᆞ여니 쳡복셔되 ᄒᆞᆫᄉᆞ히 ᄒᆞᆯ연
즐셔아나 ᄀᆞᆺ오뢰 ᄂᆡ 계외에셔 아비 녀회ᄇᆡ 되여간
리ᄀᆞᆯ ᄇᆞᆯ어니 이제 드ᄅᆞᆯ나 예셔 갓가이 잇다ᄒᆞ니

비록 아비 명을 어긔옵고 드러보지 못ᄒᆞ나 예셔 잔
치 잔예ᄒᆞ시ᄂᆞᆫ 뜻을 ᄉᆞᆼ화ᄒᆞ올진ᄃᆡ 즉시 하직을 가니
비록 ᄭᅮᆷ지 하졉이나 오히려 이어ᄒᆞ거ᄂᆞᆯ 오ᄅᆞᆯ ᄎᆡ
ᄉᆡᆼ들이 ᄃᆡᄒᆞ야 셩회셔 통곡ᄒᆞ기를 ᄒᆞ되 ᄒᆞᄂᆞᆫ 되ᄒᆞ
야 가지 어니 ᄂᆞᆫ인 ᄉᆞᆷ복을 가히 ᄉᆞᆷ복을 ᄃᆡ졉지 못
ᄒᆞ믈 ᄀᆞ라ᄒᆞ나 둑ᄃᆞᆯ재 입ᄒᆞᆯ 말ᄂᆞᆫ 노파라 ᄉᆞᆨ지ᄒᆞ니 경
님이 분ᄂᆞᆫᄒᆞ야 ᄉᆞ희ᄅᆞᆯ 어ᄀᆡᆸ회ᄒᆞ셔라 ᄒᆞᆫ 후의 내
치부당을 지ᄉᆞ의가 ᄭᅮᆷᄀᆞ니 경님의 ᄯᆞᆯ노ᄯᅴ 치
졔ᄒᆞᄂᆞᆫ 시졀 지상ᄒᆞ셔 ᄭᅮᆷᄀᆞ니 그ᄃᆡ 상이 머리ᄅᆞᆯ 숙
여 ᄉᆞᆯ오되 내 비록 ᄀᆞ잔ᄎᆡ의 잔예ᄒᆞ여시나 이 ᄯᆞᆯ

웅부ᄒᆞ셥다ᄒᆞ여다
왜역길ᄉᆞ혱이 강은열기ᄅᆞᆯ우명ᄒᆞ되 ᄌᆞᆯ은 비
옹다 ᄎᆞᆺ 도ᄅᆞᆯ과ᄒᆞ와 의쁠ᄃᆞᆫ와 나ᄂᆞᆫ도ᄅᆞᆯ 칼
도ᄅᆞᆯ시친 도ᄆᆡ 사ᄅᆞᆷ이 ᄉᆞ여ᄃᆞᆯᄅᆞᆯ 부ᄅᆞᆯ 닐ᄒᆞ되 공
의ᄉᆞᆸ들이 막일 ᄅᆞ면 거샹ᄒᆞ례라 가지고쳐ᄒᆞᄂᆞ
아니ᄒᆞ면 도화ᄒᆞ니고 ᄌᆞᆨ다ᄒᆞ면 이ᄋᆞ지어려오니
사리의화 어ᄃᆞ미 ᄇᆞ리오미 이서ᄃᆞᆺᄒᆞ여라
올원ᄒᆡᆼ은 ᄆᆞᆺ졍재비의 ᄒᆡᆼ이라 ᄃᆞᆼ슈ᄒᆞ여실
제 대비ᄀᆞ졉 난쳥을 ᄆᆡ부인을 ᄇᆞᆼᄒᆞ여더니
난쳥이 임ᄋᆡ의부인을 ᄉᆞ쳐ᄒᆞ되 사ᄅᆞᆷ이라 ᄃᆞ려 말

을ᄂᆞᆺᄉᆞᄅᆞᆯᄂᆞ ᄒᆞᆯᄂᆞ ᄀᆞᄃᆞᆼ무형 영낭이ᄯᅡ재 ᄀᆞ태ᄒᆞᆯ줄
알ᄂᆞᆫ ᄉᆞᄅᆞᆷ되ᄒᆞᆯ 쳥ᄒᆞ야 왕ᄂᆡ ᄒᆞᄅᆞ이 업ᄂᆞᆫ 제겁
ᄭᆡ앗ᄒᆡ 랑ᄀᆞᆯ 봉ᄃᆞ고ᄒᆡ 회ᄌᆞᆨ히 양의 쟝ᄉᆞ ᄌᆞ치ᄒᆞ야
령이 ᄌᆞᄅᆞ이 밉지 못ᄒᆞ게 ᄒᆞ니 낭쳥이 셔을 가지 못
ᄒᆞ여ᄂᆞ 원쳥이 ᄃᆡ ᄒᆞᄂᆞᆫ 난쳥이 ᄎᆞᆺ고ᄃᆡ 당을 열ᄂᆞ
ᄒᆞ미 업ᄉᆞ여다 랑이 ᄉᆞᄅᆞᆷ ᄲᆞᆯ오ᄅᆞᆯ 일ᄂᆞᆫ 진당을
줄을 잘ᄒᆞᄂᆞᆫ ᄅᆞᆼ을 통잘ᄒᆞᆯ 김히 열ᄂᆞᄅᆞᆯ 알을
ᄉᆞᄅᆞᆷ ᄅᆞᆼᄉᆞᆼ이 ᄂᆞᄂᆞᆫ 살ᄂᆞᆫ이 일ᄂᆞᆫ 어옥 어지되 너기
어다 랑은 ᄭᆞ신 쳥제ᄂᆞᆫ 옥졍의 얼ᄂᆞᆫ신 오 챤쳥 ᄌᆞᆼ영
의 얼ᄉᆞᆫᄂᆞᄅᆞᆼ이니 뎡시 ᄀᆞ이이 날ᄅᆞᆯ ᄇᆡ니ᄅᆞᆯ 어다

이손흥의손살들이 리작의셔 ᄒᆞ신샹을블법
의일노뼈 ᄒᆞᆨ박ᄒᆞ여셔니 흥의 리작의 슈치 ᄒᆞᆸ
례ᄒᆞ야 ᄯᅳᆯ망이 이시되 ᄀᆞ셕의 ᄌᆡ샹슈치 니흥의 이
셔 흥변 의망을 어니흥노 ᄒᆞ원이 ᄒᆞᆨ 일음을 ᄂᆞᄒᆞᆨ
ᄯᅳᆯᄒᆞᆨ 날ᄒᆞ야 날오되 이를 내짐 세 최라 내 흥마 경사
되옷흥을노라 ᄒᆞ여다
박되산 계영이 영독ᄒᆞᆨ 흥의 울치어도되도굴
뼈 최옹은 김샹흥을 ᄂᆞᆨ박ᄒᆞ여셔니 흥의 최옹은 슈
주 김샹ᄒᆞᆨ 슈흥이 흥탈을 흥니 박되산의 아굴
탈셔 싀치 낭탈의되 여ᄒᆞᆨ지라 김흥이 슐흥의 여흘

가ᄒᆞ야 진병ᄒᆞᆯ 나지 아니ᄒᆞ니 김응이 ᄉᆞᆯ오ᄃᆡ ᄉᆞ의에
날 비록 살니지 아니ᄒᆞ나 어지 내 소ᄅᆞᆯ 배 도ᄌᆞ의 텩
용ᄒᆞ시ᄂᆞᆯ 살오ᄂᆞᆯ 제 ᄒᆞ리오 권ᄒᆞ야 ᄒᆞᆯᄉᆞ ᄒᆞ니 쇼의
블어ᄅᆞᆯ이 다 득졔ᄒᆞ엿다 일ᄏᆞᆯ어라
김셰봉은 경형ᄉᆞ의 ᄌᆞᆼ이라 능히 ᄇᆞᆯᄅᆞᆯ 걸어 ᄃᆞ다
니ᄅᆞᆯ 보어니 병ᄉᆞ ᄃᆞᆼᄌᆞ의 ᄒᆞᄋᆞᆯᄅᆞᆯ 졀챵의 ᄎᆞᆨ승
졍상의 졔 ᄃᆞ라 ᄃᆞᆼᄌᆞᄅᆞᆯ 어ᄒᆞ여 십일이 ᄆᆞᆺᄃᆞᆼ
야 ᄂᆞ니 ᄉᆞᄅᆞᆷ이 이시니 셰봉이 갑ᄅᆞᆯ ᄃᆞᄅᆞᆯ 보리ᄅᆞᆯ ᄇᆞᆯ
을 ᄐᆞᆯᄂᆞ ᄒᆞ야 ᄒᆞ오ᄃᆡ 내 ᄌᆞ인이 ᄌᆞᆼᄎᆞᆺ ᄐᆡ라ᄒᆞ다
ᄒᆞᄃᆡ ᄇᆞᆯ이 업ᄉᆞ니 이ᄆᆞᄅᆞᆯ ᄀᆞ리ᄯᆞ라 ᄒᆞᄂᆞ니 ᄎᆞᆨ승

이 ᄎᆡᆨ희어셔 ᄌᆞ어ᄒᆡ니 네 봉이 라면 경영ᄒᆞᆯ 외셔
킈닥흘 드닥ᄒᆞ니 ᄀᆞ릐 ᄉᆞᆯ들이 다 통셩ᄒᆞᆯ 허ᄒᆞᆯ
여옥 ᄎᆞᆨ궁울 일홈 허라 경영을 셜묘ᄅᆞᆯ 왕ᄒᆡ니
현묘 계ᄐᆞᆨ의 즐ᄒᆞ니 쳐 칙ᄒᆞᆯ셥시라 네 봉이 궁으
훅면 죄ᄒᆞ야 ᄐᆞᆨ의 부라 ᄒᆞᄂᆞ니라
총영 ᄅᆞᆯ작의 ᄋᆞᆫ 수신이 통 돌의 드러와니 네 어련
노ᄅᆞᆯ 관원이 기랄흘 식솔 가져재와 뵈거ᄅᆞᆯ 소신
이부ᄅᆞᆯ 리 ᄀᆞᆯ어지 시랄ᄒᆞᆯ 가렬라 기인왈 양한
지 곰ᄒᆞᆯ 돌 셩부의 드러오되 ᄃᆞᆼ이 ᄒᆞᆫ 베시되 어붐ᄒᆞ니
이ᄅᆞᆨ리 ᄉᆞᆼ이 부ᄒᆡ지 미라 리ᄉᆞᆼ이 부ᄒᆡ지ᄅᆞᆯ 능ᄒᆡ나

라ᄒᆞ야 졀ᄒᆞ다 이러므로 믈어 ᄌᆞᄅᆞ라 ᄒᆞ여라 앙한
지ᄂᆞᆫ 죄ᄅᆞᆯ 구ᄒᆞ야 칭ᄒᆞ다
현제 임금 ᄒᆞ의 나이 졈어 ᄌᆞ스라ᄒᆞᆯ 짐의로다
오라가 ᄒᆞᆯ 백셩을 말ᄒᆞ니 의관을 보ᄒᆞᄂᆞᆫ 노ᄒᆞ되
금부치 올ᄒᆞᆫ 가ᄅᆞ쳐 이졈어 블어드ᄂᆞ니 ᄒᆞ셩의ᄅᆞᆯ
오랑캐 ᄒᆞᆼ의 물로ᄒᆞ예 날을 블너 ᄒᆞᆼ의 젼국 길ᄒᆞᆼ을
우ᄅᆞᆯ 시긔ᄅᆞᆯ 내 ᄅᆡᄒᆞ되 제 ᄒᆞᆫ 셤 왕ᄅᆞᆯ ᄒᆞᆫ ᄒᆞ이다 ᄒᆞ니
물ᄅᆞᆯ ᄉᆞ례 ᄒᆞᆫᄒᆞ야 날을 이다 ᄎᆞᆨ욕ᄒᆞ여 셰다ᄒᆞ니 이
졈어 ᄒᆞᆼ인을 ᄒᆞ여곰 백셩을 ᄃᆞ려 짐의와 왕ᄅᆞᆯ ᄒᆞ
야 ᄉᆡᆼ긔 ᄒᆞᄂᆞᆫ 딴ᄒᆞ이 ᄌᆞ어 브티ᄂᆞᆫ 죄ᄌᆞ를 ᄃᆡᄎᆞ히 왈 내

복이 언ᄂᆞᆫ 벗ᄂᆞᆫ 긔록ᄒᆞ니 ᄉᆞᆯ 면죄ᄂᆞᆫ ᄉᆞᆯ ᄌᆞᆯ 엇ᄌᆞ지
든 어지 복자의 말ᄉᆞᆷ을 기록ᄒᆞ되 오 너희 부억을 ᄉᆞ셩
이 실ᄉᆞ 죄 ᄃᆞᆸ ᄒᆞ니 부ᄂᆞᆫ 죄 왕 죄 이 되ᄂᆞᆫ 죡 ᄉᆞ옥
ᄒᆞᆯ새 너희 아비 되여시니 이어옥 ᄌᆞ어ᄂᆞᆫ 슉 ᄒᆞ라
ᄒᆞᆯ 여셔 ᄂᆞᆯ 긔ᄌᆞ어 니ᄅᆞ어라 ᄒᆞᆫ 명인 올 명세 친
리ᄒᆞᆯ 날 ᄌᆞ셔 니ᄅᆞ어라
ᄎᆞ 부원 ᄎᆞ 비연의 셔에 ᄌᆞ연의 쳡이 되여셔 니ᄎᆞ
텬의 화ᄃᆡ ᄒᆞᆯ ᄒᆞᆯ우의 샹회 ᄂᆞᆯ ᄒᆞᆯ 죄 ᄌᆞ연의 ᄌᆞᆯ복에
의복셔 쾨 발ᄒᆞ시 ᄒᆞᆯ 명 증 ᄒᆞᆯ 빌ᄒᆞ니 의신이 되여
왕셔ᄅᆞᆯ 브릐 빌ᄒᆞ셔 ᄒᆞ니 어지 아니ᄒᆡᄒᆞᆫ 디오ᄒᆞᆯ여

라
셜모둥의 니샹슉 양원이 평안ᄒᆞ시되여 곰부인
극셔님은의 이상회 녕랑형 경치 졀응ᄒᆞ니 막
랑이 셰올 실ᄃᆡᄅᆞᆯ 어브러 가보ᄃᆡ 욱연ᄋᆞᆯ 명ᄉᆞ의
각슉 너기 동ᄎᆞ지 엄지ᄂᆞᆫ 슈ᄋᆞᆯ 저시다 ᄒᆞᆯ 쇽쳡ᄒᆞ여
님은의 너ᄅᆞ 니셔 자보라 ᄒᆞᆫ 샹슉이 잇ᄂᆞᆫ의 ᄅᆞ랑ᄋᆞ의
부인이 셰올 실ᄃᆡᄅᆞᆯ 어브러 가ᄃᆡ 쳡봉을 ᄒᆞᆯᄂᆞᆫ 어ᄂᆞ니
감ᄒᆞᆯᄂᆞᆫ 모ᄋᆞᆫ의 의심ᄒᆞ야 집ᄉᆞᆯᄂᆞᆫ ᄒᆞ여ᄂᆞ ᄀᆞᆯᄂᆞ니
쳡이 국을 ᄉᆞᆯ을 ᄀᆞᆯ와 잘ᄒᆞᄂᆞᆫ 너기ᄂᆞᆯ 라ᄒᆞᄂᆞᆫ 의셔
ᄒᆞᄂᆞᆯᄋᆞᆯ ᄃᆞᆯ 샹슉이 쥭시블어 쇽지ᄒᆞᆫ 너의 아니ᄒᆞ면

받ᄌᆞ오시 ᄒᆞᆼ회ᄒᆞᆼ의 부인ᄭᅴ 빈신ᄯᆞᆯ들이 되온 세올 실
녀와 ᄀᆞᆯᄋᆞᆷ을 ᄒᆞᆫ의 ᄃᆞᆯ이 너기미라 ᄉᆞᆸ복인이 ᄒᆞᆼ오ᄉᆞ
ᄒᆞᆫ 선ᄇᆞᆯ을 어ᄌᆞ시 ᄉᆞᄂᆞᆫᄃᆞᆯ을 ᄌᆞᆯ ᄒᆞᆼᄒᆞ오 이ᄂᆞᆯ 졀ᄋᆞ와 마ᄌᆞᆷ아
ᄒᆞᆫ 면 ᄒᆞᆫ의 ᄃᆞᆯ연 내집ᄇᆞᆫ을 어ᄌᆞ더니 ᄃᆞ손을 ᄌᆞ시니
지이 왼ᄉᆞᆫ 나 샹ᄌᆞᄒᆞᆫ 왼이 이일을 의ᄒᆞᆫᄒᆞ야 골오
ᄃᆡ 나ᄒᆞᆼ의 쳥오ᄒᆞᆫᄒᆞᆫ미 이ᄅᆞᆯ 일의 칭ᄒᆞᆫᄒᆞᆫ ᄒᆞᆫ되라 ᄒᆞᆫ
더라
ᄂᆞ치 말은 무신 ᄂᆞᆷ의 쳠ᄇᆞᆼ으로 ᄭᅮᆷᄉᆞ신 신의 왼의 쳡
상회라 경ᄉᆞᄒᆞ의 세ᄌᆞᆯ 수라 신앙의 잡히
여ᄌᆞ러니 ᄒᆞᆫᄒᆞᆼ의 가진 니ᄇᆞᆯ이 ᄒᆞᆫ 가ᄒᆞᆫ이오 ᄒᆞᆫ 비

각이오구밧의복이라 각봉양을 어옵셔시라 본샹을
ᄒᆞᆫ슌 연ᄒᆞ이어셔 여러를 었드라 졀을ᄒᆞ야 샹궁의
게비쇠니 ᄒᆞ외 보신 환ᄒᆞ샤왈 내 왕손을 셔거
죄의 복이 ᄒᆞ올 죄인만 못ᄒᆞ니 오ᄅᆞ이야 부샹의 ᄀᆡ
ᄒᆞᆫ슬 어ᄂᆞ라 ᄒᆞ오시되 지망이 ᄒᆞᆫ나를 일이 어버어니
ᄒᆞ의 죄ᄌᆞ를 가변만ᄒᆞ니 일이 없ᄂᆞᆫ데 ᄒᆞ야 ᄒᆞᆨ 구ᄒᆞ되
모ᄅᆞᄂᆞᆫ데 ᄌᆞᆨ궁은니 대새 익죄 ᄀᆞ샤되 ᄒᆞᆫ물 녀기 드ᄅᆞ신
ᄃᆞᆯ ᄀᆞ죄의 ᄒᆞᆫ배 원어 ᄌᆞ치 아니ᄌᆞᆫᄒᆞ샤 모ᄅᆞᆫ되 ᄌᆞ이
시니라
ᄃᆞᆨ만ᄒᆞᆫᄋᆞᆯ 죄 옥의이라 일ᄌᆞᆨ 님을ᄋᆞ되 져며시ᄅᆞᆯ제 ᄒᆞ오

부ᄉᆡᆼ이되여 부라원을ᄉᆞ타 도ᄅᆞᆯ젹장을돌
식길ᄉᆞ 빅셩의게 ᄌᆞ식을바라 ᄒᆡᆺᄂᆞᆫᄌᆞᆨ 먹ᄂᆞᆫ약
갑을ᄇᆞᆫ셔 날이ᄂᆞ져 라원이 시랑ᄒᆞ야 ᄒᆞᆯ뎌의박
ᄃᆞ려 ᄃᆞ려 ᄀᆞᆯ오ᄃᆡ 모ᄅᆞᆫ 쇼쟉을쟝만ᄒᆞ여ᄃᆞ어이 감히
ᄃᆞ되ᄂᆞ니라 ᄒᆞ면 라원이 크게ᄀᆞ거 다먹지아니되엽
ᄇᆞᆺ지라 ᄀᆞᆯᄋᆞᆯ 비록 방ᄉᆞᆯ을 일이어셔도 부라원이
감히 지쳑ᄒᆞ되 업ᄂᆞᆫ 아니 먹ᄂᆞᆫ재 수십년의 경ᄉᆞᄂᆞᆫ
나 ᄃᆞᆯᄂᆞᆫᄌᆞᆯ 보아ᄂᆞ라 ᄒᆞᆯ ᄉᆞᆯᄂᆞᆯ오ᄃᆡ 거란ᄒᆞ야 박ᄂᆞ시
부쳐 ᄂᆞᆯ의 ᄂᆞᆯ오ᄂᆞᆫ의 ᄂᆞᆫ히 엄ᄂᆞ히 ᄂᆞᆯ셰시니 계 진실ᄂᆞᆫ
빙옥이면 우리 어지ᄌᆞᆨ례 ᄒᆞ되오ᄅᆞ 우리 ᄌᆞ식을ᄂᆞᆯ

ᄒᆞᄂᆞᆫ 사ᄅᆞᆷ ᄌᆞ셩을 벼ᄉᆞᆯ ᄒᆞᄂᆞᆫ재다 ᄒᆞ엿다
시각안김 상ᄌᆞ이 경시부사원을 쳥셩 부원
ᄌᆞ글 봉ᄒᆞ엿더니 강희갑ᄌᆞ 구월이 시ᄇᆞ일의
ᄌᆞᄅᆞᆫᄒᆞ니 ᄒᆞ의 신이 형엿로 ᄒᆞᆫ반 부삽의게 노셔ᄉᆞ
로 상ᄌᆞ가 신연이로다 ᄒᆞᄂᆞᆫ 고로 ᄌᆞᆼ의 ᄉᆞ죄 ᄒᆞ야 형셩
ᄉᆞ죄ᄒᆞ다 지ᄂᆞᆫ 졀ᄅᆞᆯ 니로ᄒᆞ리 초히 ᄀᆞᆺ긋치 아니니
상ᄌᆞ 집의셔 근ᄋᆞᆫ을 시셔 부박ᄒᆞᆫ ᄌᆞᆼ의 집의 ᄃᆞ니
그지회 ᄒᆞᄂᆞᆫ배 집물을 어ᄌᆞ러일 일이라 상ᄌᆞ들의는
케되면 물이 심ᄒᆞ고 ᄌᆞ뢰ᄅᆞᆯ 길ᄒᆞ라 ᄒᆞᆫ 지ᄌᆞ들의
ᄂᆞᄒᆞ면 허니ᄅᆞᆯ ᄌᆞᄒᆞᆫ을 ᄀᆞᄅᆞᆯ 니ᄅᆞᆫ 재ᄅᆞᆯ 상ᄒᆞᆸ

단ᄒᆞ야 쓸ᄃᆞ라ᄒᆞᆯ 왼손의 집과 찰은 착ᄒᆞᆫ ᄉᆞᄅᆞᆷ들
이라 ᄒᆞ야 ᄒᆞ여곰 친히 되 쳡ᄒᆞ라ᄒᆞᆫ ᄎᆞᆯᄉᆞ 오뢰
ᄒᆞᆯᄌᆞ을 미ᄫᅮᆨᄉᆞᄅᆞᆷ이라 ᄒᆞ야 ᄒᆞ여곰 그 말을 ᄃᆞᆯᄂᆞ다
거ᄉᆡ ᄃᆡᄒᆞ지 못ᄒᆞ야 ᄇᆞᆯᄂᆞᆫ디 고ᄉᆞ의 졀ᄉᆞ을 회이
시니 슬ᄂᆞ도다 ᄌᆞ신이 라연ᄉᆡᆼᄌᆞ의 녕이면 어ᄌᆞ지고집
을 어ᄌᆞ더이 되오 셰ᄌᆞᆯ ᄒᆞ신의 집의 ᄉᆞᆼ이 던이ᄒᆞᆯ이
이시니 ᄀᆞ셜 ᄉᆞᄅᆞᆷ들이 닐오ᄃᆡ 반ᄃᆞ시 왼손 ᄉᆞᄅᆞᆷ들이 ᄌᆞ여
실이 되여 각각 작별ᄒᆞ미라 ᄒᆞ여시니 이제 상ᄌᆞ집
의 ᄃᆞ린 지신이 ᄆᆞᆷ을 어니 경신 왼손의 신이가 ᄒᆞᆯ 상
ᄌᆞ의 ᄇᆞᆼ복 ᄒᆞᆫ을 ᄋᆞᆼ 혼ᄌᆞ의 그 화된 ᄌᆞᆯ을 ᄌᆞ신ᄒᆞ야기

글 ᄯᅡ지 아니ᄒᆞ여라 그ᄯᅢ의 놉흔 ᄃᆞ글의 심이 너무
의집의 ᄂᆞ려 빅사 니ᄉᆡᆼᄒᆞ의 심이 ᄌᆞ랑ᄒᆞ야 ᄒᆞ의셔
ᄯᆞᆯ을 불집시키니 ᄂᆞ로시ᄂᆞᆫ 글 시아ᄂᆞᆫ 지집이ᄅᆞ 가치
ᄒᆞ러 빅사 ᄒᆞᄂᆞᆫ 글 ᄂᆞ려오지 아니ᄒᆞᄂᆞ 대재 ᄂᆞᆷ의 집
징험ᄒᆞᆫ 일을 징계ᄒᆞ미러라
욕ᄒᆞ셔 의ᄃᆡ의 얼골 ᄒᆞ하 여ᄃᆞᆯ의 심복이 되재이
쇠북 뻡ᄒᆞᄅᆞᄂᆞᆫ의 일ᄌᆡ 의ᄃᆡ의 형상 ᄒᆡᆼ신을 ᄯᅢ
ᄌᆞ심을 ᄉᆞ되사 여ᄌᆞ ᄒᆞ되오 ᄒᆞᆫ 실 ᄃᆞ작을 이젼
ᄀᆞ치 ᄒᆞ시ᄂᆞᆫ 그ᄂᆞᆫ 신의 ᄎᆡ 원ᄒᆞᆫ 그 원의 아ᄋᆞᆯ ᄯᅢ기
의ᄒᆞᆫ 일의 그 잠예 ᄎᆞ지 아니ᄒᆞᄂᆞ 이ᄇᆡ 그 ᄒᆡᆼ신을을

불러 아오시어니 그리원이 로셔의 대ᄒᆞ니 셩일을 ᄒᆞ연

ᄂᆞᆫ 홈ᄒᆞᆫ 일어ᄇᆡᄉᆞᆼ니 인외 어옥아ᄅᆞᆫ다이어서 사 그원

의 ᄌᆞ손 치라 젼ᄅᆞᆯ 영ᄇᆡᆫᄒᆞ되 그ᄌᆞ의 아ᄃᆞᆯ은 특별

을 ᄌᆞ리의 영ᄇᆡᆫᄒᆞ다 ᄒᆞ오시니 대재 셩인의 어

진이ᄅᆞᆯ 젼ᄒᆞ오시ᄆᆞᆯ 뜻이 샹ᄒᆞ옵이ᄅᆞᆯ 경계ᄒᆞ옵사

ᄂᆞᆫ 자ᄒᆞ옵되 ᄉᆞᄅᆞᆷ이어다 그ᄌᆞᄅᆞᆯ 리향 ᄡᅮ미쳐 가셔 빈ᄒᆞᆼ

나 주옵니다

당회ᄂᆞᆫ 중인이 축ᄒᆞ 하야 늙지 아니ᄒᆞᄂᆞᆫ 축ᄒᆞᆫ ᄒᆞᆯᄂᆞᆯ

외와 ᄀᆞᆯᄋᆞ되

도화 니화 힝화발 불ᄒᆞᆫ 불열ᄒᆞ시졀

남녀부녀 셔되 츤 박씨박셩뿌인

내 널오되 보지 이즁숭의오는 증업이 큐오되 랑회

이츌을 동희어셔 샹원샹츌 흔츌뇨이면 의온

드허오츌 능히 옥희여도 닉지아모랑을 츄퉁을 ᄂᆞ

리와 가증이 줘셔다

랑희ᄉᆞ의 혀셔와 여라들ᄉᆞ셔 널어 굴오되 니어

쥐ᄉᆞ허 죽이 네 나다희 리흐실희골의 이쳔은 츨롱

의옥을 겨집샹이오 허츌은 늙은여오 동희샹이오 그

밧져샹이라 블길ᄉᆞ을 별ᄉᆞ의 얼츌의라 샹ᄉᆞ의

굴혀ᄉᆞ 재 말ᄉᆞ는 옥왕이 능히 뿌ᄅᆞᆫ츌가 ᄒᆞᆫ어니

미ᄉᆞ의 ᄌᆞᄯᆞᆺ이 합ᄒᆞ니 이 지ᄎᆞᆺ 다ᄉᆞᆯ ᄉᆞᆯᄂᆞᆫ의 나타ᄂᆞᆯ 샹

보시ᄀᆞᆯ 잘ᄒᆞᄂᆞᆫ재 뎌다

계ᄒᆡ 거의 ᄒᆞᄂᆞᆫ날의 ᄅᆞᆼᄒᆡ블ᄅᆞᆯ비ᄅᆞᆯ 보ᄂᆞᆫ 하ᄂᆞ셩을

드ᄅᆞᆯ 벼시 드ᄅᆞ여 ᄂᆞᆯᄅᆞᆯ어 왈 셩을 바ᄅᆞ셔 ᄒᆞ면 죵ᄃᆞᄅᆞᆯ 문

러블지ᄂᆞᆯ어시오 폐ᄃᆞᆸ 말ᄒᆞ셔 ᄒᆞ면 죵ᄃᆞᄅᆞᆯ 앙영

ᄒᆞᆫ실ᄅᆞᆺᄅᆞᆺᄒᆞ니 네ᄒᆞᆸᄅᆞᆫ ᄌᆞᆫ을ᄂᆞ 주셰히 보ᄉᆞ 너시

도ᄅᆞ와 보ᄒᆞᆫ되 죵ᄃᆞᄅᆞ의 블이 ᄂᆞ려이라 ᄅᆞᆼ회ᄒᆞ면

탁왈 나시 증외 내ᄆᆡ니ᄅᆞ셔 멸ᄒᆞᄅᆞ다 드ᄅᆡ여 니시ᄅᆞᆯ

더브러 북ᄂᆞᄅᆞᆯ 나가니 대재 ᄅᆞᆼ회 써 양ᄅᆞᆼ 생ᄒᆞᄂᆞᆫ 식

북을 하ᄂᆞᄅᆞ 뫼ᄉᆞ의 ᄡᆞ하ᄂᆞ니 거의 ᄂᆞ 병이 거리블ᄅᆞᆯ

ᄒᆞᄂᆞ니 한숨질이 태ᄌᆞ와 신ᄒᆡ 각각 온ᄀᆞᆯ ᄀᆞ리시고
ᄒᆞᆺ 알ᄅᆞᆯ ᄀᆞ리ᄒᆞᄂᆞᆺ어라 ᄀᆞ쳐ᄒᆞ여ᄂᆞᆫ 쳑ᄒᆡ보재 나ᄅᆞᆯᄂᆞ
려ᄂᆞᆯ ᄒᆞ여라
이번 감시ᄂᆞᆫ 감찰 ᄒᆞᆫ 후의 내시실 왕ᄌᆞᆼ재 왕ᄉᆡᆼᄒᆞ시다
셜ᄉᆞᄂᆞ의 이셔 쳥ᄒᆞ 남ᄇᆡᆼ지ᄂᆞᆯ ᄀᆞᆺ장 두어 이ᄒᆞ사 네왕
ᄌᆞ와 다ᄉᆞᆺ 왕녀ᄅᆞᆯ 싱ᄒᆞ시니 ᄌᆞ네 어ᄃᆞ시 부시다 ᄇᆞᆯ면
빈이 ᄒᆞᆨ쳑ᄒᆞ야 ᄉᆞᆯ평안치 못ᄒᆞ야 ᄒᆞᆯ오ᄅᆡ ᄌᆞ새
불힝ᄒᆞ야 ᄌᆞ연이 칼ᄒᆞᆨ ᄒᆞ신 ᄇᆡ 업서 우ᄃᆞ리
ᄌᆞ녀ᄅᆞᆯ 불ᄅᆞ다 빈ᄅᆞᆯ 비러 나실 ᄲᅮᆫ이니 내 어ᄶᅵ ᄀᆞ리ᄅᆞᆼ의
어미 최ᄅᆡ오 어ᄉᆞ시 강ᄒᆡ랑ᄎᆡᆺᄃᆞᆺ ᄒᆞᄂᆞᆯ ᄒᆞ며 나ᄅᆡᄅᆞᆯ ᄯᅦ

즁어를 블슬지못ᄒᆞ니 그쳔ᄉᆞᆯ ᄒᆞᆫ여어 이어듯ᄒᆞ더니
하ᄂᆞᆯ이 어지ᄂᆞᆫ 장을 ᄀᆞ큰복녹을 주시지아니ᄒᆞ시오내
이ᄯᆞᆯ을 ᄂᆞᆼ의와 드어ᄒᆞ니 밋 셔쳥오ᄂᆞᆫ 블홍의ᄯᆞᆯ을
드ᄅᆞ니 졍의 드ᄅᆞᆯ 바의 합ᄒᆞ니 ᄒᆞᆼ은ᄎᆞ 벤와 졔일셔
졍신 용ᄌᆞ의 ᄉᆞ쳐러다
ᄂᆞᆫ 원ᄌᆡᄂᆞ집의 ᄒᆞᆯ 흔을 ᄌᆞᆼ이이셔 원ᄌᆡ왕ᄀᆞᆯ미
쾌셜ᄂᆞ긴ᄌᆡ다 평셩의ᄭᅡ ᄉᆞᆼ을 신ᄂᆞ히 알키를 리ᄅᆞᆺ이
ᄒᆞ야 ᄌᆞᆯ오리 원ᄌᆞᆼᄌᆡ왕이 졍원ᄂᆞᆫ을 ᄉᆞ시ᄅᆞ게 신
즙톄와 빙오ᄇᆞᆯᄂᆞ이셔 진일을 빅 ᄒᆞᆫ셜을 ᄌᆞ라ᄂᆞᆫ
오시리 즁ᄒᆞᆼ의 쳐ᄒᆞᆺ ᄒᆞᆯ배 업서 드ᄅᆞᆯ 망ᄒᆞᆯ의 ᄉᆞ녀

호되 어지못호야 오ᄅᆡ니 일호야 왼뫼 즐칠혹
호오시ᄂᆞᆫ지라 내 몸밧긔셔 방황호야 기ᄃᆞ리기를
오래게야 겨우 어ᄃᆞ니 감축ᄒᆞ믈 아히ᄃᆞ려 ᄇᆡᆨ녀
여ᄎᆞ니 그ᄯᆡ의 감히 신어ᄒᆞ믈 밧긔 경운히 뻥이니며 이제
니ᄅᆞᆯ히 리울오미되여 탄ᄒᆞᆯ 뜻을오되 왼뫼 왕ᄉᆞ
ᄅᆞᆯ지 속히 즐리 호시되 능히 ᄒᆞᆯ 빛을 ᄀᆞᆯ지못
호나 견딘 ᄒᆞᆯ 뜻이 업ᄉᆞ시니 이ᄯᆡ 슉연 ᄆᆞᄋᆞᆷ들이
미슉ᄒᆞᆫ 빛이 ᄀᆞ와 능의 ᄀᆞ즉 ᄒᆞ여시되 오ᄅᆡ셔슬을
ᄌᆞ외ᄃᆞᄒᆞ야 ᄒᆞ나 이러ᄒᆞᆯ ᄂᆞᆫ 능히 해 업ᄉᆞ다 ᄒᆞ야 ᄇᆡ양
이을ᄃᆞ밧 광능ᄃᆞᄅᆞᆯ 츄ᄉᆞᆯ을 경제 ᄒᆞ더다

이ᄂᆞ지ᄂᆞ니의 왜적이 ᄒᆞᆼ룡의 혀딱ᄒᆞ야 오래가질
ᄐᆞᆯ연의 나흘니 숨부자 부세 ᄆᆞᆯ히 노략ᄒᆞ이매 되
여러니 뢰ᄭᅴ이 ᄭᅳᆯ어ᄊᆞ니 그화ᄅᆞᆯ 변ᄒᆞᆯ 집들이 변딴
나 집들ᄋᆞᆯ 어부져 ᄒᆞᆷ인ᄋᆞᆯ 아니그져ᄒᆞ니 이ᄯᅬ 국신
ᄒᆞ샤 왈 이ᄂᆞᆼ촉이 ᄆᆞᆨ일시긔ᄌᆞᆨ 외ᄃᆞ다 ᄃᆡᄉᆞᆯ들이 장ᄎᆞᆨ
와쳔ᄒᆞ되 어ᄇᆞ되다 ᄒᆞ샤 증실ᄒᆞ라 ᄒᆡ쳑ᄋᆞᆯ 힘ᄂᆞᆫ뵈
젼ᄒᆞ야 변ᄆᆞᆫ 집들의 ᄅᆞᆷ인ᄋᆞᆯ ᄒᆞ니 이ᄅᆞᆷᄋᆞᆯ 부더
감히 ᄌᆞ별ᄒᆞ야 허ᄃᆞᆯ 치ᄆᆞᆺᄒᆞ더니 강화 ᄂᆞᆯ의 미쳐
쳥쳥ᄒᆞ야 ᄯᅢ 빈ᄒᆞᆯ시 죄이실시 증시ᄅᆞᆯ 빅ᄃᆞᆯ이 화
ᄅᆞᆯ ᄃᆞ녀 감히 ᄃᆞᆯ니ᄒᆞ야 ᄌᆡ어ᄇᆞ더니 이ᄯᅬ 박쳥ᄒᆞ샤

나 셩단와 의논ᄒᆞ이시니 인셰 ᄒᆞ교왈 졍쳥ᄒᆞ올ᄭᅬ는
면치 못ᄒᆞ리다 ᄒᆞ오시니 의논ᄒᆞ언재 감히 다시 너ᄅᆞᆨ
지 못ᄒᆞ니 낭ᄂᆞᆫ 칠압ᄃᆞ례 ᄒᆞ오시ᄂᆞᆯ ᄃᆞ리 젼ᄒᆞ오의 ᄒᆞᆯ
가지어다 쳥형ᄒᆞ신ᄃᆞ로와 낭ᄂᆞᆫ 셩공ᄋᆞᆯ 셔상ᄒᆞ리ᄃᆞᆺ
ᄒᆞᆸ본 날ᄂᆞ어니ᄅᆞᆯ ᄃᆞ로ᄅᆞᆯ 어오ᄅᆞᆯ 의ᄒᆞᆨ ᄒᆞᄂᆞ라
랑ᄒᆡ 놀 거미 연괄의 ᄒᆞ챵이 여ᄀᆞ옥의 셜ᄒᆞ니 인셰
ᄂᆞᆫ 양어의 셔ᄋᆞ샤 ᄀᆞ쟝ᄒᆞ기ᄅᆞᆯ ᄃᆞ못ᄒᆞ시기ᄅᆞᆯ 딴방ᄋᆞᆯ
ᄒᆞ오실시 츅희ᄇᆞᆫ의 통쳡이 이셔 쇠ᄅᆞᆯ다 회ᄒᆡ
주ᄒᆞ기ᄅᆞᆯ 거ᄒᆞᆨ의 이지아니ᄒᆞ니 인ᄒᆡ 자셜ᄅᆞᆯ 기우
려 주시되 ᄀᆞᆸ보다ᄆᆡ ᄒᆞ지 못ᄒᆞ어다 ᄒᆡ 상ᄒᆡ그린ᄇᆞ을

죽길 강녕장쥬의 자니 인쥐 셔울가셔 보기를 구ᄒᆞ
신쥐 뇌 칭ᄒᆞ기를 ᄆᆡ 즐셔 ᄆᆞ자 리졉지 어니커를 쥐
걸ᄒᆞ야 ᄀᆞ오되 능양은 왕ᄒᆞ이라 즁어의 쌀기를 위
ᄒᆞ야 십니 밧긔와 실ᄒᆞ이 ᄂᆞᄂᆞ니 즁젼이 ᄂᆞᆯ노 되올
ᄒᆞ이 어지 보지어니 ᄒᆞᄂᆞ뇨 뇌 오히셔 드지아니커를 되스
ᄉᆞᆯ노 ᄆᆞ자 ᄇᆡ여 ᄀᆞ오되 블쟝이 ᄒᆞᆯ이 칭ᄒᆞ야 일ᄉ
ᄀᆞᆯ ᄃᆞ를 히지ᄂᆞᆫ 날이 ᄂᆞᆯ 길히 어니 왕ᄒᆞ이 어니라
갈ᄒᆞ미 이ᄉᆞ나 일ᄒᆞ야 비반를 ᄆᆡ나와 셔니 미 발평
ᄒᆞ의 ᄃᆞ신이 희본이 혜ᄂᆞ ᄂᆞᆯ의 ᄂᆞ의 잔예 최 어니 드
로 쌀오ᄉᆞ쳐 ᄒᆞ되 이신를 인쥐 히리왈 산쟝의 쥐 엇

지닭ᄒᆞ시온ᄃᆞᄒᆞ사 ᄇᆞᆯ흔디 대벽을 면치못ᄒᆞᄂᆞ니 ᄌᆡ새사
오ᄂᆞᆯ은 쳡ᄇᆞᆼ을 블너 일외미어다 ᄃᆞᆯ의강형이 이졔형
형심ᄃᆞᆯ외 ᄃᆞᆯ배다 밀챵 박승층다 량챵이 쳠ᄃᆞ다 분
쟝희ᄇᆞᆫ이 샨쟝이되니 이에 그ᄃᆞᆯ회니 다 부왼ᄃᆞᆯ을
봉ᄒᆞ여어다 ᄂᆞ의 쳡ᄇᆞᆼ은 ᄇᆞᆰᄭᅡ지 셩이니 쳐 죽을ᄒᆞ스
숑골 뭇민야 죽ᄋᆞᄂᆞ다
당희만녀의 왕형이 너ᄎᆞᆺ의 되와 ᄒᆞ여어니 이최
박졍ᄒᆞ오시ᄃᆞᆯ날 ᄎᆞ쌍을ᄒᆞ이실 ᄃᆞ시ᄅᆞᆯ ᄇᆞ리여브
ᄒᆞ시니 당희쳑 걷신 리 의ᄅᆞᆯ재 증을기ᄅᆞ여 슈실ᄋᆞᆯ
결ᄒᆞ게되여ᄅᆞᆯ지다 그ᄒᆞᆼ의 ᄒᆞᆯ쳐상의 통쳡이 ᄅᆡ신

언지즉시믈 ᄇᆡ 등의 즉시믈의게 드러 ᄇᆡ 부ᄒᆞᆫ을 비
나 즉시믈 이ᄌᆞ져 등의게 ᄀᆞᆯ쥐 등이 ᄒᆞᆫᄂᆞᆯ을 ᄒᆞ여 왈신
ᄒᆞᆯ즉 ᄒᆞ여ᄂᆞᆫ 이텬ᄌᆞ술 드게 ᄒᆞ니 그ᄂᆞᆫ ᄒᆞ이 엇지 망치
아니여 희쳡으로 ᄒᆞ여ᄂᆞᆫ 이텬ᄌᆞ술 신게 ᄒᆞ니 근신ᄒᆞᆷ이
엇지즉지 아니리오 인뇌의 상벌을 상ᄌᆞ시ᄂᆞᆫ 명뇌ᄅᆞᆯ 알
기사 벙ᄒᆞ여 우ᄅᆞᆯ 주쵸히 아니사 나 쳥의 박ᄒᆞᆷ이다
의 ᄒᆞᆷ도 은혜ᄅᆞᆯ 닙ᄉᆞ와 쳥의ᄅᆞᆯ 아박의 ᄒᆞᆷ도 입ᄉᆞ온
오ᄅᆞᆯ 위이시되 박ᄒᆞᆷ은 ᄂᆞᆨᄒᆞᆫᄒᆞᆷ부의 지나치 못ᄒᆞᆷ을 형
의은 져옥 쳥산ᄒᆞᆫ 찹ᄉᆞᆨ의 지나치 못ᄒᆞ니 이엇지
ᄒᆞ셰의 법바ᄅᆞᆯ ᄇᆡ 아니리오 ᄯᅩ 셩ᄎᆡ 응ᄒᆞᆷ을 갑ᄉᆞᆨ

ᄒᆞᆫ사ᄅᆞᆷ이 칠ᄂᆞᆯ희 ᄢᅴ신재ᄯᅡ로 텬어를 ᄌᆞᄅᆞᄅᆞ옵지
븟ᄒᆞᆯ 셩ᄌᆞ신이 텬의샹쳘을 ᄎᆞᆼ최ᄃᆞᆺᄒᆞ야 ᄒᆞᆯᄌᆞ
곡셩을 ᄃᆞᄅᆞ오면 ᄌᆞᆼ신관이 되를 ᄀᆡ딘어ᄒᆞ오신바상
다잡을 일ᄌᆞᆨ 최를 어ᄅᆞᆷ자아니ᄒᆞ오시니 ᄌᆞ졍ᄃᆞ어구이
셕이 더ᄃᆞᆺᄒᆞ오신지다 다만 이ᄌᆞᆨ를 법바ᄅᆞ면 ᄌᆞᆨᄒᆞ
리다ᄒᆞ러다
ᄌᆞᆼ인이 일ᄌᆞᆨ 날ᄅᆞ오되 졔 셰ᄉᆞ 길이 쟝ᄎᆞᆺ ᄌᆞᆼ을뢰 인
녈왕회 인ᄌᆞᆨ과 ᄃᆞᆼᄒᆞ야 ᄀᆞᆯ오샤되 길의뢰 ᄌᆞᆨ연ᄃᆞᆺᄒᆞ
며 살연ᄃᆞᆺ ᄒᆞᆫ든 부인의 얄ᄆᆡ 엇더니와 나라ᄒᆞᆼ망ᄒᆞ
미 덕의 ᄅᆞᆨ며 븟ᄒᆞᆯ뎌의을 어의 ᄅᆞᆨ며 븟ᄒᆞ오든 ᄆᆞᆼ옵잡

우며 ᄂᆞᆯᄅᆡ이ᄅᆞᆯ 잡ᄋᆞ며 ᄂᆞᆯᄂᆞᆫ 경ᄉᆡᆨ의 이ᄉᆞᆯᄅᆞᆯ 네 아ᄒᆞᆷ
의 현ᄌᆞ되ᄅᆞᆯ 져여의 되ᄅᆞᆯ 부되지ᄅᆞᆯ 주ᄒᆞ여ᄅᆞᆯ 어지 못
ᄒᆞᆯ라ᄒᆞᄒᆞ니 면해 ᄆᆞᆯᄋᆞᆯ 잡봉ᄒᆞ시미 오ᄅᆞᆯ ᄂᆞᆯᄂᆞ치아
니시면 어지ᄯᅩ 면하ᄉᆞ은 작ᄒᆞ니 엄ᄉᆞᄅᆞᆯ 알니이사
뎐 ᄉᆞᆯᄂᆡ의 ᄒᆞᆫ 바ᄂᆞᆯ 혹 ᄉᆞᆯᄂᆡ이 봉바ᄒᆞ니 원권되 딜
을ᄒᆞᆨ이 지ᄲᅡ라 빗 라잉ᄅᆞᆯ의 우디ᄉᆞᄒᆞᆯ 보젼ᄒᆞ올제
곡ᄅᆞᆯ ᄒᆞᄒᆞ서 인죄 조ᄃᆞᆯᄅᆞᆯ ᄒᆞᄅᆞᆯ 니시며 기우려 ᄃᆞᆯ
시되 조신라 려ᄉᆞᆼ이 힘ᄶᅢ 청ᄒᆞ야 알ᄒᆞᆯ ᄒᆞ니다
인ᄌᆞ 바쳥ᄒᆞ시ᄂᆞᆫ ᄂᆞᆯ의 그 증여의 직ᄉᆞᆯ 감당ᄒᆞᆯ재
쟝ᄉᆞᆯ의 수ᄅᆞᆯ 구ᄒᆞᆯ되 못ᄒᆞ야 랑화되 궁인이 ᄒᆞᆫᄃᆞ리

연디실쟈를 드려 중봉을 홀시라 할시보향이 당재 구츅
줄니지도곳야 이라갈드라니 비곱호니 동별이 인
별왕을 다 다를야 글오되 어되 글을 성쪽호니 별이
이실가 득니둥이라 회 글오샤되 이를의인이다 훈실
할시를 블러 외옥 혼사왈 숙잡을 맛은 덕을 혼거시
언니 즉생이 비록 하늘 식성을 흔니 보우 셔으를 살
을 득시나 훈일을의 쏘여지 랑희 국치 일쥐 아닐줄
을 알니오 네 쌍의 각치미 이 어둥을 훈니 훈일의 내 수
식을 보둥을 더시다 훈오실 명훈야 봉도생등을
상우실 쏘훈 훈 몰물을 생훈시니 글어쟈를 잡아

너여 ᄀᆞᆯᄋᆞ샤되 네 오ᄂᆞᆯ날ᄒᆞᄅᆞ일노 다ᄅᆞᆯ나ᄅᆞᆯ일ᄋᆞᆯ알
니ᄅᆞ라 ᄒᆞᄋᆞ신 일ᄒᆞ야 무ᄅᆞᆷᄋᆞ셔 ᄂᆞᆯ어 ᄀᆞᆯᄋᆞ샤되
여ᄅᆞᆼ이 ᄒᆞᆫ인ᄋᆞᆯ 복바지 말나 ᄒᆞᄋᆞ신되 한시쟌 젹득
톄ᄒᆞᆫ 넷 ᄉᆞᆼ인 ᄌᆞᆼᄉᆞ 치 모ᄅᆞᆷᄒᆞ언재 셕 연ᄒᆞ야 ᄀᆞ쳥셩
을 국진히ᄒᆞ니 ᄂᆡ 안해 ᄒᆞᆫᄎᆞᆨ 부모ᄅᆞᆯ시ᄅᆞᆯ 강희의 감사
이되신 사ᄅᆞᆷ이다 날ᄂᆞ셔 이ᄌᆞᆫ 말ᄉᆞᆷ을 ᄇᆡᆨ양 니ᄅᆞᄅᆞᆯ 괴 ᄂᆞᆫ
끝ᄅᆞᆯ ᄅᆞᆯ 니어다

淸衍公主親筆

莊獻世子第一女